

Dasom Sarang 2021~2022

다솜 사랑
DASOM
KOREAN SCHOOL
통권 제36호



다솜 한국학교

www.dasomks.org

다솜사랑

Dasom Sarang
2021-2022 다솜한국학교 교지
(통권 제36호)

다솜한국학교 Yearbook
발행인/편집인: 최미영
편집위원: 권미정, 박은경, 안지은, 조은미, 홍지연
디 자 인: 김소연
사 진: 김원구
표지 다솜사랑 글씨 디자인: 최하은
발 행 일: 2022년 8월 (통권 제36호)
주 소: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홈페이지: www.dasomks.org
이 메 일: info@dasomks.org
인 쇄: Better Yearbook (1-888-550-8604)

다솜사랑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서니베일 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의 교지로 연간 1회 출판하며 본 한국학교의 역사 기록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본 교지에 게재된 글이나 사진 등은 다솜한국학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무단 복제나 사용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Dasom Korean School,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04	인사말 _ 교장 최미영
	05	격려사 _ 이사장 전남진
	06	축사 _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 정광용
	07	축사 _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 원장 강완희
	08	다솜한국학교 연혁
	09	다솜한국학교 학사보고 및 수상자 명단
각 반 소개 및 학생 작품	10	기쁨반 _ 교사 안지은
	22	충성반 _ 교사 홍지연
	36	온유반 _ 교사 권미정
	53	화평반 _ 교사 조은미
	71	열매반 _ 교사 박은경
학생 및 학부모 글	86	졸업생 글 모음
	87	졸업생 부모님 글
	89	기타 학생 글과 작품
이모저모	100	한국 역사문화 강의
	102	다솜의 자랑, 보조교사들의 이야기
	106	행사 모음
	114	보도자료 모음
	124	다솜 앨범
	131	다솜한국학교 교사 및 이사진
	132	다솜 온라인 등록 안내
	133	역사문화 캠프 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멈추지 않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교장 최미영



2년간의 팬데믹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021~2022학년도 종업식과 졸업식을 대면으로 진행하며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필수로 여기고 다솜에서 열심히 공부한 우리 학생들과 학생들을 이끌어주신 부모님들께 자랑스러운 마음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에서도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이사회와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가을 학기 개강식을 마치고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봄학기 개강을 하고도 한 달만인 3월에 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삼일절 행사와 개교기념식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선생님들도 모두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에도 선생님의 가르침에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주고 잘 성장해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사보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학생들이 교내뿐 아니라 교외 활동에서도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는 말이 있습니다. 다솜은 지난 18년 동안 공동체와 마을이 되어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을 돕고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만 100% 한국인, 100%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함께 돕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솜한국학교가 지속하여 정체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다솜한국학교 이사장 전남진



먼저 ‘다솜교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배우고 가르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잊어버리지 않게 간직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묶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좋은 교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 교육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나를 보여주는 기록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마다 발간되는 다솜교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봄 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하며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 가지 활동과 수업을 하게 되어 이 또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뒤에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학부모님들과 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보조교사들과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어린 학생들 그룹(중, 고등학생)들이 줄지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학교에서 필드 트립을 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학생들이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고국 체험을 하기 위해 온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2주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존재 이유 등을 배우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을 받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생 한 번은 조국 이스라엘에 다녀갈 수 있게 “Birth Trip”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원하면 이스라엘 시민권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결집된 힘과 애국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정체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솜학교가 이 일에 지금까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 큰 몫을 하고 있음에 늘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2022년 다솜 교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다솜한국학교의 개교 18주년을 축하드리며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총영사 정광용



2022년 다솜한국학교의 개교 18주년과 교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솜한국학교가 18년 동안 한인 사회와 지역사회에 한글 보급, 한국문화 및 역사 전파를 위해 큰 기여를 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재정 확보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미영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님, 이사회 등 모든 분의 하나 된 노력을 통해 이러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18년의 세월은 사람으로 따진다면 성인에 접어든 나이로서, 신체의 발달은 어른과 같이 거의 완성되고, 지적으로 호기심과 창의력이 많이 늘어나게 되나, 그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경우 성인으로서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본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기간에도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였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TV, 휴대폰 등 수많은 전자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 가는 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 예술은 대중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한국어에 대한 재외동포와 세계인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살리고, 18년 동안 다솜한국학교가 보여 주었던 특유의 창의적인 노력과 협력을 높여 나간다면, 그동안 이루었던 성장을 뛰어넘는 발전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솜한국학교의 개교 18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Proud Korean American’이 될 사랑스러운 다솜 학생들에게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장 강완희



다솜의 사랑스러운 학생들이 일 년을 마무리하던 오월의 끝자락에 워싱턴에서는 BTS가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백악관 접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멤버 한 명, 한 명이 또박또박 한국어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Proud of being a Korean American”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K-Pop을 위시한 한국문화의 열풍과 더불어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미래로 향하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다솜 한국학교의 학생들도 역사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신념으로 밤낮으로 열심이신 최미영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Proud of being a Korean American”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Proud Korean Americans’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솜 교육에 대하여 믿음으로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과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학생들과 함께 멋진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지난 일 년의 학교 활동을 오롯이 담은 교지 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의 마음을 듬뿍 담아 보냅니다.

다솜한국학교 2021~2022학년도 연혁

2021년 가을학기	
2021년 8월 15일	교지 <다솜사랑> 통권 35호 발행
8월 9, 16, 24, 28, 31일, 9월 8일	교사연수회 및 보조교사 연수회
9월 11일	2021-2022학년도 개강식 (대면), 교사회의
9월 11일	추석 행사 (강의: 안지은, 홍지연 교사)
9월 18일	아침 조회 후에 수업 시작 (아침 조회 담당: 최미영 교장)
9월 18일	북가주 교사 연수회 참여 (온라인)
9월 25일	교사회의
10월 2일	역사문화 강의 I (주제: 한글) (강의: 최미영 교장)
10월 9일	교사 회의 및 교내 연수회
10월 23일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 121주년 기념 독도의 날 행사 (강의: 최미영 교장)
11월 16일	LA 총영사관 주최 한인사 인종학 포럼 강의 (주제: 한글학교에서의 인종학 수업) (강의: 최미영 교장)
11월 20일	역사문화 강의 II (주제: 한국음식) (강의: 박은경 교무)
11월 20일	교사 회의 및 교내 연수회
11월 27일	추수감사절 휴강
12월 18일	대면 수업 및 한국 문화 활동 후 겨울 방학 시작
12월 18일	보조교사 사론회 및 <한인 이민사 인종학에 나오는 세계 속의 한인 리더 > 출판기념식
1월 22일	겨울 방학 후 개강
1월 29일	가을학기 종강, 성적표 배부, 교사 회의
2022년 봄학기	
2월 5일	봄학기 개강, 교사 회의, 설 행사 (강사 권미정 교사, 조은미 교사)
2월 19일	교사 회의 (대면 수업 시작, 삼일절 행사 및 개교18주년 기념식 의논)
2월 26일	역사문화 강의 III (주제: 우리가 아름다운 한복 홍보대사) (강의: 박은경 교무)
2월 26일	최미영 교장 재미한국학교 중서부협의회 봄 교사연수 초청 강의
2월 28일	대면 수업 안내 및 학부모 동의서 발송
3월 5일	대면 수업 시작 및 삼일절 103주년 행사 진행
3월 12일	개교18주년 기념식 및 전통놀이 대회
3월 19일	화평반과 열매반에서 NAKS 표준 평가시험 실시
4월 2일	역사문화 강의 IV (주제: 우리의 집 '한옥') (강의: 최미영 교장)
4월 9일	북가주 나의꿈 말하기대회: 열매반 윤지윤 입상 수상 <제목: 아름다운 한글을 널리 알리는 캘리그래피 작가>
4월 16일	반 별 학년말 평가
4월 23일	최미영 교장 코리안 아메리칸 컨퍼런스(LA, CA)에서 강의
4월 23일	북가주 스펠링비 대회: 열매반 남소은, 윤지유 학생 입상 수상
4월 30일	안중근 의사 청소년 말하기 대회: 열매반 김민건 대상 수상 <제목: 평화의 메신저 안중근 의사>, 온유반 유준희 참가상 수상 <제목: 안중근의 짧은 삶과 꿈>
5월 7일	종강식과 졸업식 준비를 위한 교사회의, 교과서 수급
5월 14일	AAPI Cultural Festival에서 보조교사 한동진, 이준건, 이남현 참가하여 자원봉사함
5월 21일	2021~2022학년도 종업식 및 졸업식 • 1년 개근상: 박가은, 장예림, 명소정, 손우제, 장예진, 김서윤, 손은제, 한서진, 박채린, 윤재윤, 윤지용, 김민건, 장하진 • 학기 개근상: 김연우, 유준상, 유준희, 송예담, 신주원, 안아민, 장시은, 박준우, 윤지유, 윤지윤, 장우주 • 우등상: 박가은, 정에서, 명소정, 이호윤, 김서윤, 김해든, 윤지용, 조다나, 김민건, 장하진 • 모범상: 송하담, 장예림, 김해본, 장예진, 유준희, 윤세인, 신주원, 조새린, 윤지유, 윤지윤 • 2021-2022학년도 졸업생: 장우주(졸업), 남하은(수료) • 10학년 이상 재학중인 보조교사 중 80시간 이상 봉사한 학생들에게 이사장 상 및 장학금 수여: 최하은, 권민호, 한동진, 박희보, 전이현, 이남현, 정지우, 이준건 • 대학 입학 보조교사에게 장학금 수여: 최하은 •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최하은, 권민호, 한동진, 박희보, 전이현, 이남현, 정지우, 이준건 • NAKS 차세대 봉사상: 권민호, 박희보, 한동진 보조교사 금상 수상 • 보조교사: 최하은, 권민호, 한동진, 박희보, 전이현, 이남현, 정지우, 이준건
7월 14~16일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온라인 학술행사 참여
7월 16일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 대회 수상: 열매반 장하진<백범 평화상>, 화평반 박채린 <백범 통일상>

다솜한국학교 2021~2022학년도 학사 보고

반 명	교 사 명	2020~2021학년도 학생 명단
기쁨반	안지은 (보조교사: 이남현, 박희보)	김다은, 박가은, 박지윤, 송하담, 장예림, 전윤, 정에서, 하지윤
충성반	홍지연 (보조교사: 권민호, 정지우)	김연우, 김해본, 명소정, 손우제, 이주환, 이지용, 이호윤, 장예진, 전지훈
온유반	권미정 (보조교사: 최하은, 이준건)	김서윤, 김해든, 박재현, 박주연, 손은제, 송주담, 유준상, 유준희, 윤세인, 한서진
화평반	조은미 (보조교사: 전이현)	나예준, 박채린, 신주원, 송예담, 안아민, 윤재윤, 윤지우, 윤지용, 이정윤, 이준, 장시은, 조다나, 조새린
열매반	박은경 (보조교사: 한동진)	김강현, 김민건, 남소은, 남하은, 박준우, 안아라, 오태양, 윤지유, 윤지윤, 장우주, 장하진
보조교사	최미영	최하은, 권민호, 한동진, 박희보, 전이현, 이남현, 정지우, 이준건

다솜한국학교 2021~2022학년도 수상자 명단

졸업생	장우주, 남하은
이사장상 및 장학금	최하은, 권민호, 한동진, *박희보, 전이현, 이남현, 정지우, 이준건
보조교사 졸업 장학금	최하은
1년 개근상	박가은, 장예림, 명소정, 손우제, 장예진, 김서윤, 손은제, 한서진, 박채린, 윤재윤, 윤지용, 김민건, 장하진
학기 개근상	김연우, 유준상, 유준희, 송예담, 신주원, 안아민, 장시은, 박준우, 윤지유, 윤지윤, 장우주
우등상	박가은, 정에서, 명소정, 이호윤, 김서윤, 김해든, 윤지용, 조다나, 김민건, 장하진
모범상	송하담, 장예림, 김해본, 장예진, 유준희, 윤세인, 신주원, 조새린, 윤지유, 윤지윤
대통령 봉사상(PVSA)	최하은, 권민호, 한동진, 박희보, 전이현, 이남현, 정지우, 이준건
NAKS 차세대 봉사상	권민호, 박희보, 한동진 보조교사 금상 수상
제3회 재외동포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열매반 윤지윤, 화평반 조다나, 조새린 참가상 수상
북가주 한글 글짓기 공모전	화평반 윤지윤 나라사랑상 수상 <제목: 내가 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것>
북가주 나의꿈 말하기 대회	열매반 윤지윤 입상 수상 <제목: 아름다운 한글을 널리 알리는 캘리그래피 작가>
북가주 스펠링비 대회	열매반 남소은, 윤지유 학생 입상 수상
안중근 의사 청소년 말하기대회	열매반 김민건 대상 수상 <제목: 평화의 메신저 안중근 의사>, 온유반 유준희 참가상 수상 <제목: 안중근의 짧은 삶과 꿈>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열매반 장하진 백범평화상 수상 <제목: 꺼지지 않는 빛, 김구>, 화평반 박채린 백범통일상 수상 <제목: 오늘 저는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표는 최우수 보조교사상 수상

기쁨반



담임 교사 안지은



보조 교사 박뽀뽀



보조 교사 이남현

파릇파릇한 새싹 같고 수줍음이 많은 꽃봉오리 같은 기쁨반 학생들과 일 년의 시간 동안 건강하게 모든 학사 일정을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가을 학기에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봄 학기에는 기쁨반 교실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던 기쁨반 학생들에게 칭찬과 고마움의 마음을 듬뿍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봄 학기를 시작하며 학생들을 대면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네요. 비록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며 공부해야 했지만 자리에 웅기종기 앉아 소곤소곤 떠들던 작은 목소리들과 마스크를 뚫고 보이는 눈빛에서 즐거움과 신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빛을 보며 모르는 것을 도와주고 양보하며 한자리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네모난 스크린 속의 모습들이 아닌 직접 마주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매년 다솜한국학교의 졸업식을 지켜볼 때마다 '우리 기쁨반 학생들이 졸업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벅차올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그 모습들을 상상합니다. 일 년 동안의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이 빠르게 성장하는 순수하고 해맑은 기쁨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마음도 키도 한 뼘씩 자란 기쁨반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며 응원할게요! 기쁨반 사랑해요!

담임 교사 안지은



가을학기 개강식 단체사진



비대면 수업




겨울방학식




대면 수업



















다솜 개교기념일 전통놀이 체험




김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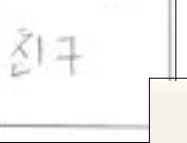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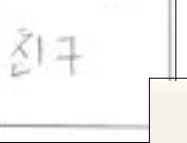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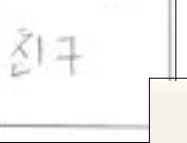



 <p>[그림일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나의 독서활동지〉</th> </tr> <tr> <td style="width: 50%;"> 제목: 숲 속 미술관 작곡: 김지민, 작곡: 김지민 </td> <td style="width: 50%;"> 책 읽은 날짜: 2021. 11. 11 책명: 숲 속 미술관 </td> </tr> <tr> <td> 독서내용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d> 다른 캐릭터들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서가에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d> 앞으로 읽어야 할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able> <p>[독서 감상화] 숲 속 미술관</p>		〈나의 독서활동지〉		제목: 숲 속 미술관 작곡: 김지민, 작곡: 김지민	책 읽은 날짜: 2021. 11. 11 책명: 숲 속 미술관	독서내용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다른 캐릭터들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서가에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앞으로 읽어야 할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p>[색종이 글자]</p>
〈나의 독서활동지〉																
제목: 숲 속 미술관 작곡: 김지민, 작곡: 김지민	책 읽은 날짜: 2021. 11. 11 책명: 숲 속 미술관															
독서내용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다른 캐릭터들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서가에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앞으로 읽어야 할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p>[나만의 낱말책] 기억</p>																



박지윤




 <p>[그림일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나의 독서활동지〉</th> </tr> <tr> <td style="width: 50%;"> 제목: 거미줄 작곡: 김지민, 작곡: 김지민 </td> <td style="width: 50%;"> 책 읽은 날짜: 2021. 11. 11 책명: 거미줄 </td> </tr> <tr> <td> 독서내용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d> 다른 캐릭터들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서가에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d> 앞으로 읽어야 할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able> <p>[독서 감상화] 거미줄</p>		〈나의 독서활동지〉		제목: 거미줄 작곡: 김지민, 작곡: 김지민	책 읽은 날짜: 2021. 11. 11 책명: 거미줄	독서내용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다른 캐릭터들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서가에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앞으로 읽어야 할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p>[색종이 글자]</p>
〈나의 독서활동지〉																
제목: 거미줄 작곡: 김지민, 작곡: 김지민	책 읽은 날짜: 2021. 11. 11 책명: 거미줄															
독서내용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다른 캐릭터들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서가에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앞으로 읽어야 할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p>[나만의 낱말책] 지웃</p>																



박가운















 <p>[그림일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나의 독서활동지〉</th> </tr> <tr> <td style="width: 50%;"> 제목: 때리면 안돼! 작곡: 김지민, 작곡: 김지민 </td> <td style="width: 50%;"> 책 읽은 날짜: 2021. 11. 11 책명: 때리면 안돼! </td> </tr> <tr> <td> 독서내용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d> 다른 캐릭터들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서가에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d> 앞으로 읽어야 할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able> <p>[독서 감상화] 때리면 안돼!</p>		〈나의 독서활동지〉		제목: 때리면 안돼! 작곡: 김지민, 작곡: 김지민	책 읽은 날짜: 2021. 11. 11 책명: 때리면 안돼!	독서내용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다른 캐릭터들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서가에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앞으로 읽어야 할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p>[색종이 글자]</p>
〈나의 독서활동지〉																
제목: 때리면 안돼! 작곡: 김지민, 작곡: 김지민	책 읽은 날짜: 2021. 11. 11 책명: 때리면 안돼!															
독서내용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다른 캐릭터들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서가에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앞으로 읽어야 할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p>[나만의 낱말책] 티을</p>																




송하담







 <p>[그림일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나의 독서활동지〉</th> </tr> <tr> <td style="width: 50%;"> 제목: 꽃가방 베이비 에스터 작곡: 김지민, 작곡: 김지민 </td> <td style="width: 50%;"> 책 읽은 날짜: 2021. 11. 11 책명: 꽃가방 베이비 에스터 </td> </tr> <tr> <td> 독서내용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d> 다른 캐릭터들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서가에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d> 앞으로 읽어야 할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able> <p>[독서 감상화] 꽃가방 베이비 에스터</p>		〈나의 독서활동지〉		제목: 꽃가방 베이비 에스터 작곡: 김지민, 작곡: 김지민	책 읽은 날짜: 2021. 11. 11 책명: 꽃가방 베이비 에스터	독서내용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다른 캐릭터들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서가에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앞으로 읽어야 할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p>[색종이 글자]</p>
〈나의 독서활동지〉																
제목: 꽃가방 베이비 에스터 작곡: 김지민, 작곡: 김지민	책 읽은 날짜: 2021. 11. 11 책명: 꽃가방 베이비 에스터															
독서내용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다른 캐릭터들도 그려주세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서가에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앞으로 읽어야 할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 느낌, 인상)															
																
 <p>[나만의 낱말책] 지웃</p>																




장예림








 <p>[그림일기]</p>	<p>〈나의 독서활동지〉</p> <p>세탁할 것 모자</p>  <p>[독서 감상화] 빨간 모자</p>	 <p>[색종이 글자]</p>
 <p>[나만의 낱말책] 키움</p>		







정예서



 <p>[그림일기]</p>	<p>〈나의 독서활동지〉</p> <p>세 마리 고양이</p>  <p>[독서 감상화] 세 마리 고양이의 가게놀이</p>	 <p>[색종이 글자]</p>
 <p>[나만의 낱말책] 지움</p>		



전 윤

 <p>[그림일기]</p>	 <p>모음을 몸짓으로 표현해요!</p>	 <p>[색종이 글자]</p>
 <p>[나만의 낱말책] 리움</p>		

기쁨반
특별활동



세종대왕 퍼펫 만들기



김다은



박가은



송하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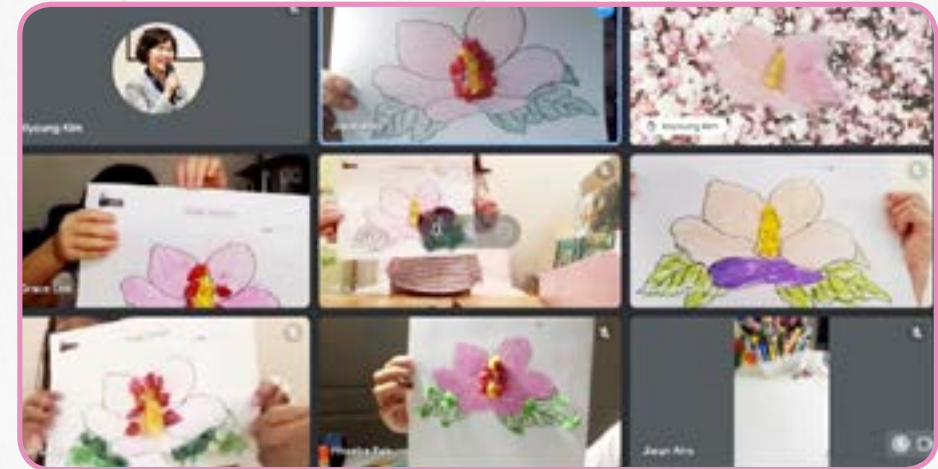


장예림



전윤

기쁨반
특별활동



우리나라 꽃, 무궁화



김다은



박가은



송하담



장예림



전윤

기쁨반
특별활동



독도의 날: 내가 만든 독도



박가은



송하담



장예림



전윤

기쁨반
특별활동



'미움'이 들어가는 글자 '거미': 거미 만들기



김다은



송하담



전윤



박가은



장예림

기쁨반
특별활동



가을: 호박 꾸미기



박가은



송하담



장예림

기쁨반
특별활동



2022년 임인년, 호랑이 신년카드 만들기



김다운



박가은



송하담



장예림

충성반



담임 교사 홍지연



보조 교사 권민호



보조 교사 정지우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학습방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연 어린 아이들과 온라인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한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특히, 어떻게 해야 한국의 문화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등의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걱정이 조금은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이 잘 적응하여 주어 참으로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화면 밖에서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서 수업에 준비 및 참여시켜 주신 부모님들의 노고가 있어 가능했음을 알기에 다시 한번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히도 상황이 많이 좋아져 봄학기는 직접 대면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부터 아이들까지 기분 좋은 긴장감을 안고 만났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화면 속에서만 보던 친구들을 직접 만나 처음에는 어색한 듯하였지만 이내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가까이서 아이들이 쓰고 읽는 것을 보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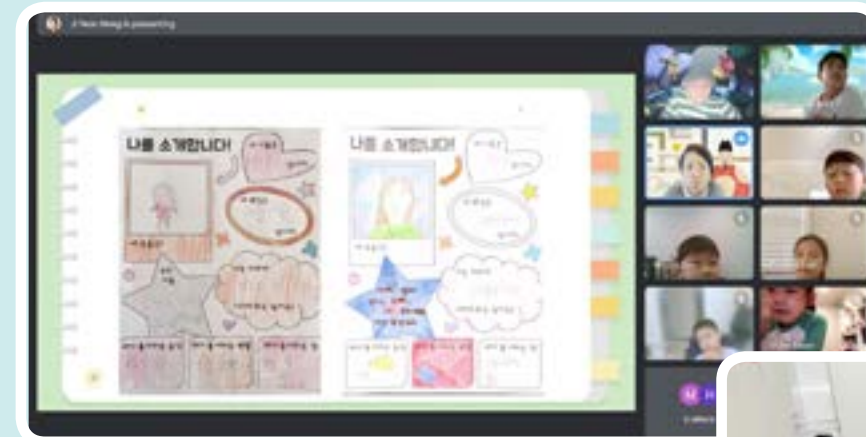
저희 아이들이 2년전 미국에 와서 영어 때문에 애쓰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 충성반 아이들이 한국어로 겪는 어려움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는 가정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아이들, 한국어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아이들, 영어보다는 한글이 편한 아이들 등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을 진행하려 노력했습니다. 제 작은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글과 친해지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나라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준 아이들을 듬뿍 칭찬해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헌신으로 도와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우리 충성반 아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교사 홍지연



가을학기 개강식 단체사진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



겨울방학식



종강식



3.1절 행사 _ 행진



다솜 개교기념일



다솜 개교기념일 전통놀이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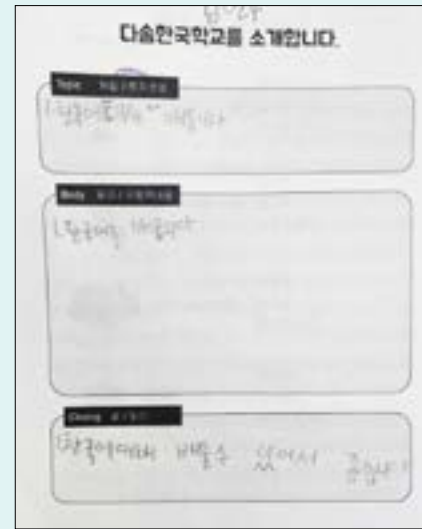
김연우



3.1절 특별 활동



역사문화수업 연계활동 _ 속담



다송한국학교 소개글 쓰기



읽기 연계활동



세종대왕 활동



전통부채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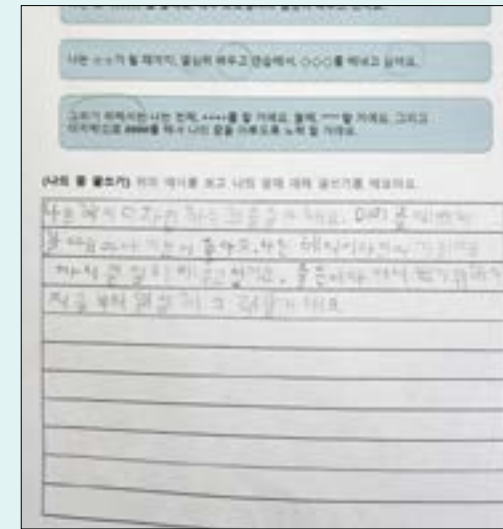
카네이션 액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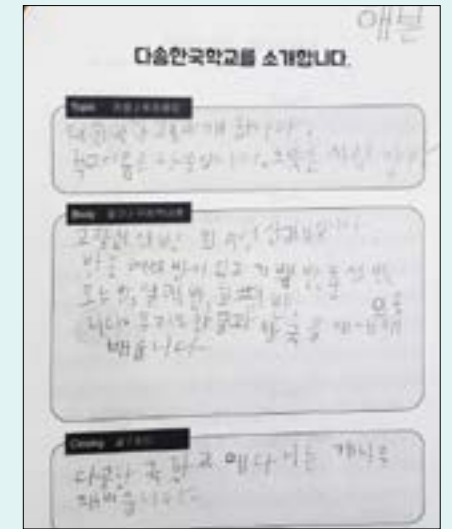
김해본



3.1절 특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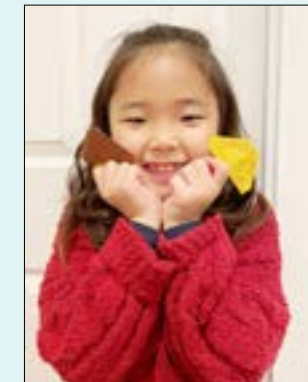
나의 꿈 찾기 글쓰기



다송한국학교 소개글 쓰기



마인드맵_나의 땡스기빙데이



종이접기_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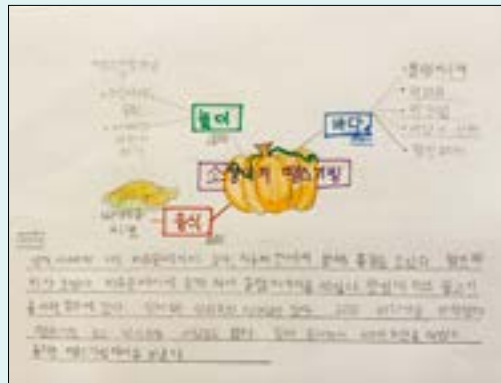
전통부채 꾸미기



카네이션 액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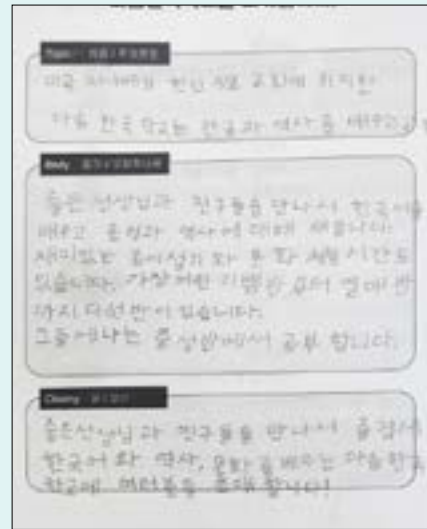
명소정



마인드맵_나의 뽕스기빙데이



역사문화수업 연계활동 _ 속담



다송한국학교 소개글 쓰기



전통부채 꾸미기



캐네이션 액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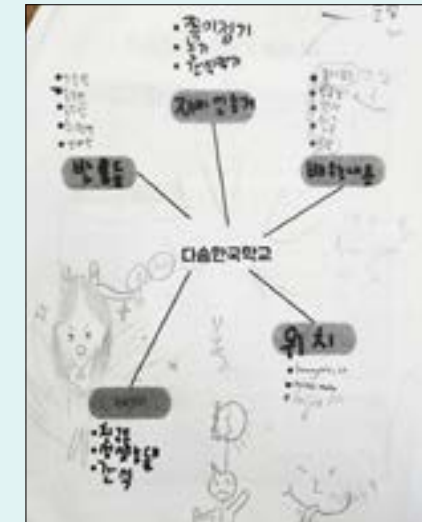
가족 관계도(패밀리트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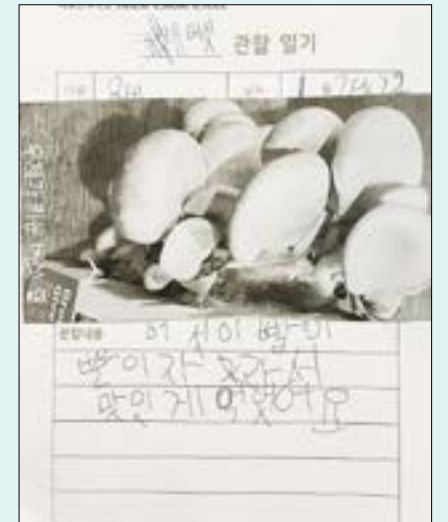
손우제



3.1절 특별 활동



마인드맵_다송한국학교



방학숙제_버섯 키우기(관찰일기)



종이접기_복주머니



한스타일 수업연계_한옥만들기



전통부채 꾸미기



캐네이션 액자 만들기



이 주 환



마인드 맵 _ 다송한국학교



비빔밥



한복 접기



한스타일 수업연계_한옥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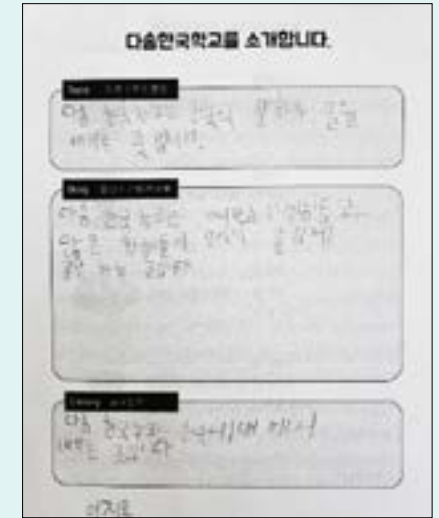
카네이션 액자 만들기



이 지 용



마인드맵_가족관계도



다송한국학교 소개글

이름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1	이재민	이재민	남	2008.01.15
2	이재민	이재민	남	2008.01.15
3	이재민	이재민	남	2008.01.15
4	이재민	이재민	남	2008.01.15
5	이재민	이재민	남	2008.01.15
6	이재민	이재민	남	2008.01.15
7	이재민	이재민	남	2008.01.15
8	이재민	이재민	남	2008.01.15
9	이재민	이재민	남	2008.01.15
10	이재민	이재민	남	2008.01.15

받아쓰기



한스타일 수업연계_한옥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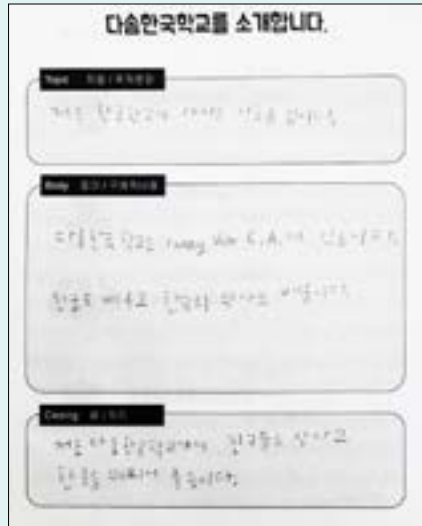
카네이션 액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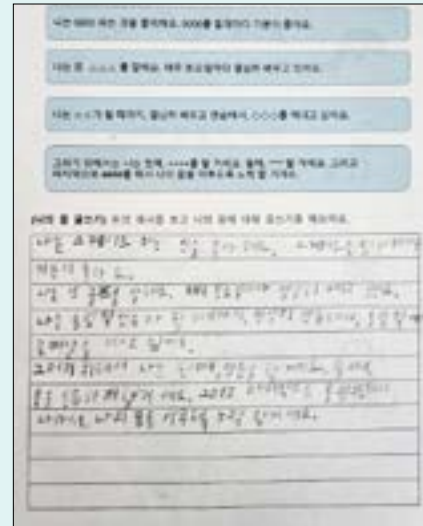
이 호 윤



3.1절 특별 활동



다솜한국학교 소개글 쓰기



나의 꿈 찾기 글쓰기



마인드맵_나의 땡스기빙데이



전통부채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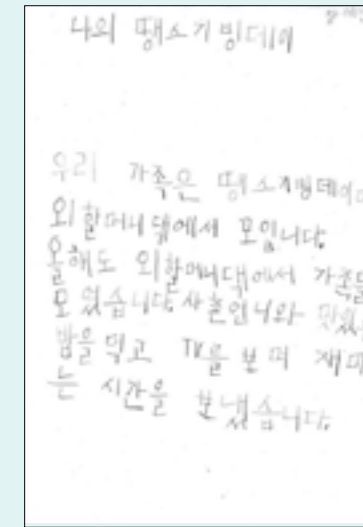
종이접기_무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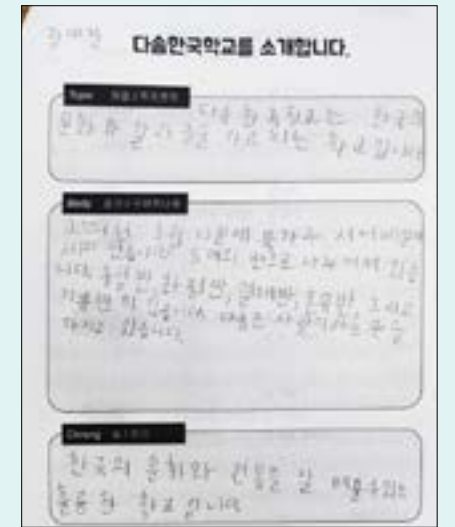
장 예 진



읽기 연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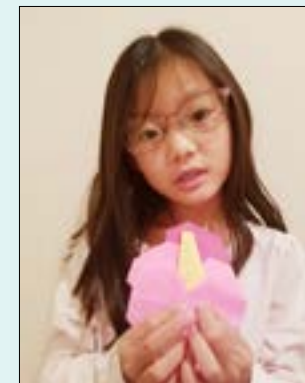
나의 땡스기빙데이 글쓰기



다솜한국학교 소개글쓰기



입체 한글 꾸미기



종이접기_무궁화



전통부채 꾸미기



카네이션 액자 만들기

총성반
활동사진
모음



동화 읽기 및 연계활동



받아쓰기

총성반
활동사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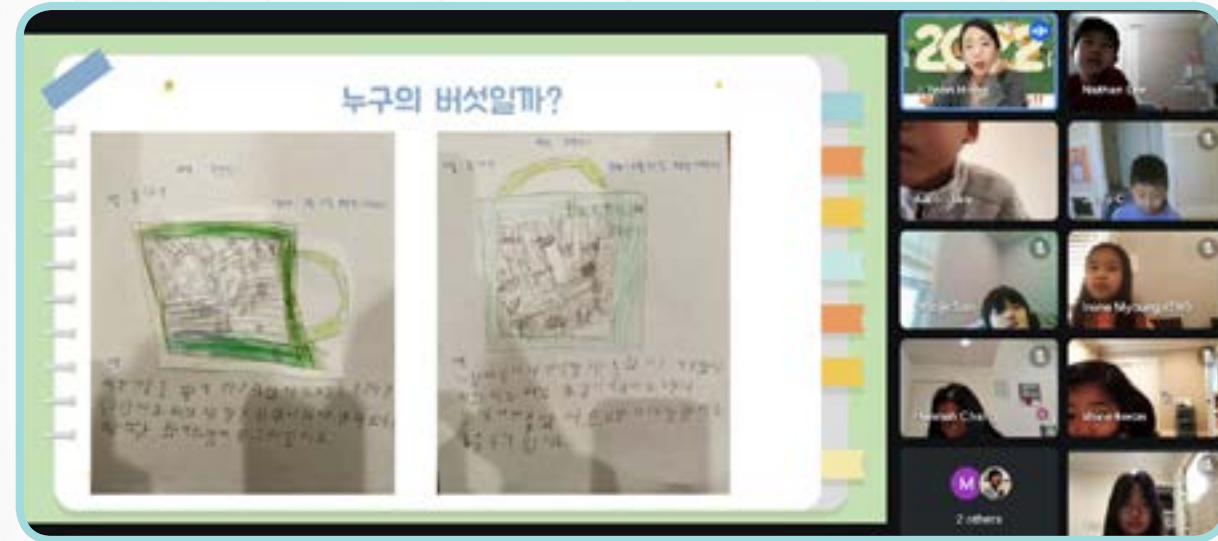


학습지 활동_겹발침, 조사의 활용, 높임말, 연결어 활용 등



색종이 접기

충성반
활동사진
모음



방학숙제_버섯키트 키우기 및 관찰/요리 일기 쓰기

충성반
활동사진
모음



한스타일 교육 연계 활동_전통 부채 꾸미기



한글날 연계 활동_입체 한글 꾸미기



나의 꿈 찾기_나의 강점찾기 → 마인드맵 → 육하원칙 활용하기 → 나의 꿈 글쓰기

온유반



담임 교사 권미정



보조 교사 최하은



보조 교사 이준건

올해는 길고 길었던 온라인 수업을 넘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며 얻게 된 가장 큰 열매는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예절을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기다리기, 친구가 발표할 때 나의 마이크는 Mute, 친구들과 오디오가 겹치지 않도록 차례를 기다리기 등 마치 온라인 회의를 하는 것처럼 의사소통의 기본을 지켜 주는 친구들을 보며 참 흐뭇했습니다.

온유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늦잠을 잘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면서도 학교에 꼭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었는데요. "선생님, 진짜로 노는 건 만나서 노는 거예요!"라며 학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말을 해서 아이들이 안쓰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며 친구들에게 놀이터는 쉬는 시간마다 가고 싶은 최고의 놀이 장소였습니다.

이번 온유반에는 적극적인 성격의 친구들이 많아서 수업 시간에도 저마다의 이유로 손을 번쩍번쩍 드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숙제 발표를 1등으로 하고 싶은 친구,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지적 호기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 수업에 재미있는 놀이를 제안하고 싶은 친구, 퀴즈 문제를 풀 때면 빠른 스피드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까지...함께 있어서 활기가 넘치고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테이블 별로 앉아서 수업을 들으며 푹푹 뭉친 팀워크를 보여줄 때는 직접 소통하는 수업이 얼마나 즐거운 수업인지 마음 깊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일 년 동안 온유반에는 두 명의 보조 선생님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먼저, 하은 보조 선생님은 큰 언니처럼 언제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어서 늘 함께 웃고 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친근한 선생님 역할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준건 보조 선생님은 딱지놀이와 빙고, 민속놀이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설명과 리더십으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역사 수업 시간에도 여지없이 호기심 보따리를 풀어놓는 친구들에게 스마트한 역사 선생님이 되어 주어 고맙습니다. 온유반에 두 분의 보조 선생님이 각자의 달란트로 함께해 주어서 완전하게 온유반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열정과 팀워크, 그리고 웃음이 넘쳤던 온유반 친구들! 선생님에게도 넘치는 열정을 밝은 에너지로 전해주어 고맙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진 배움의 열정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해마다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담임 교사 권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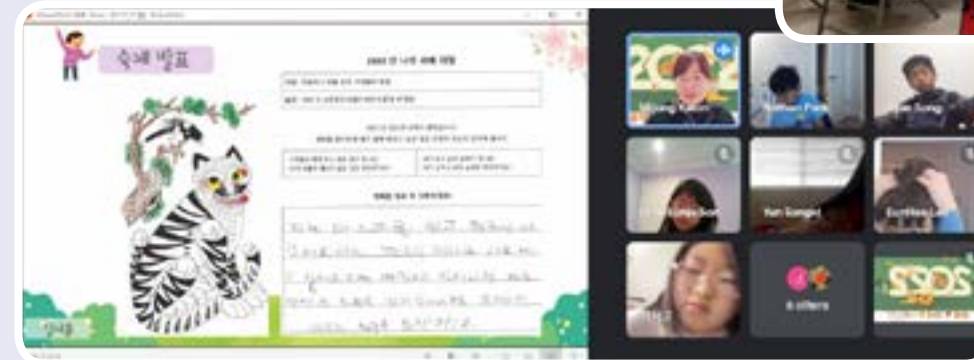


◀ 단체 사진

▶ 대면수업



▼ 비대면수업



다솜 개교기념일 _ 전통 놀이 체험



김서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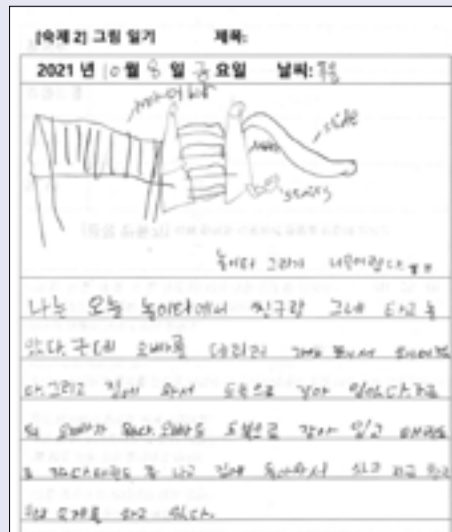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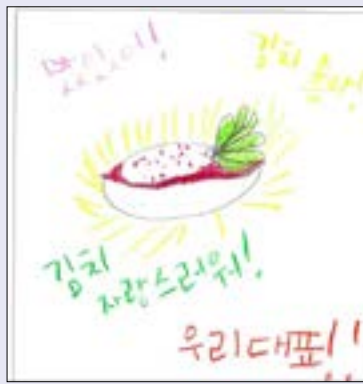


그림 일기



[시] 학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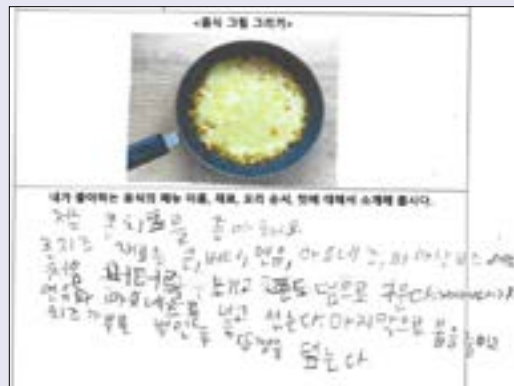
'김치의 날'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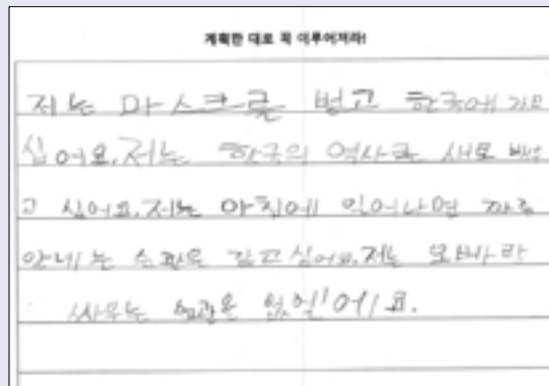
[나의 꿈] 제빵장



단청 꾸미기



[내가 좋아하는 음식] 콘치즈



나의 새해 다짐



김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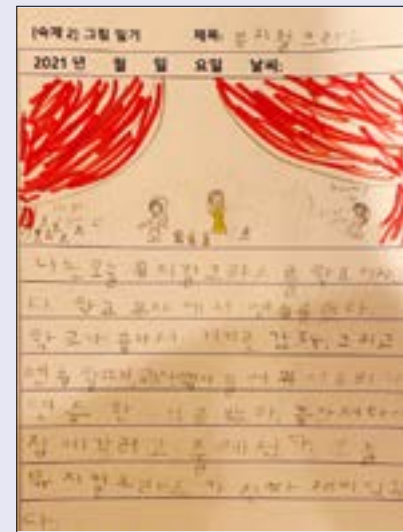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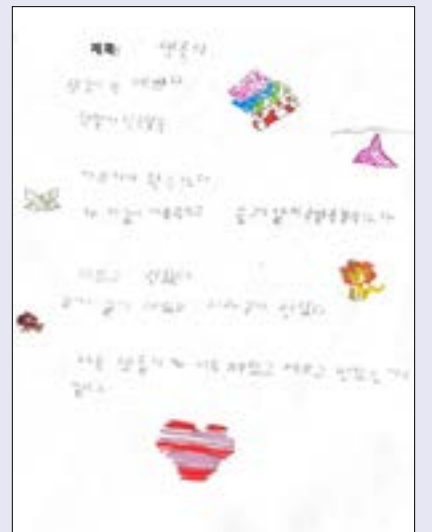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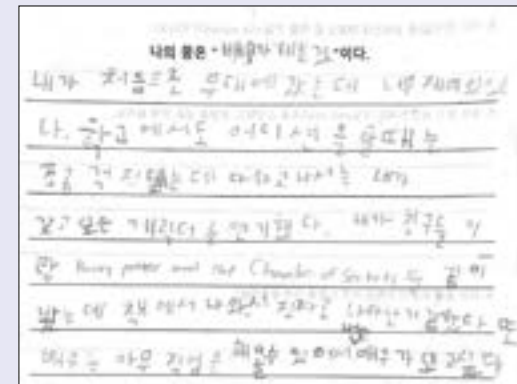
그림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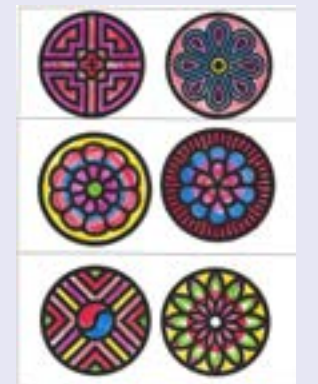
[시] 색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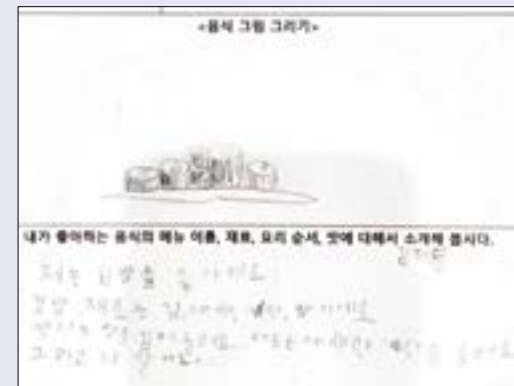
'김치의 날'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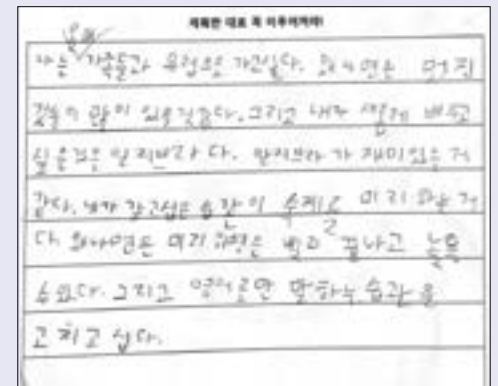
[나의 꿈] 배우



단청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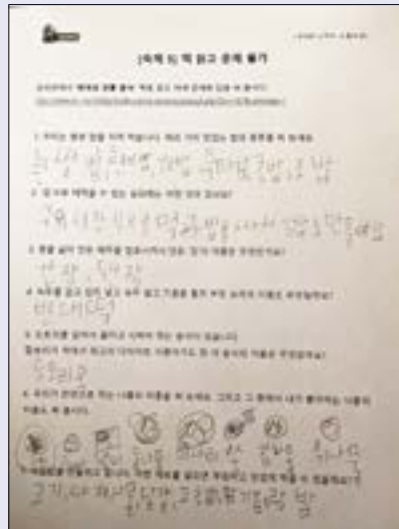
[좋아하는 음식] 김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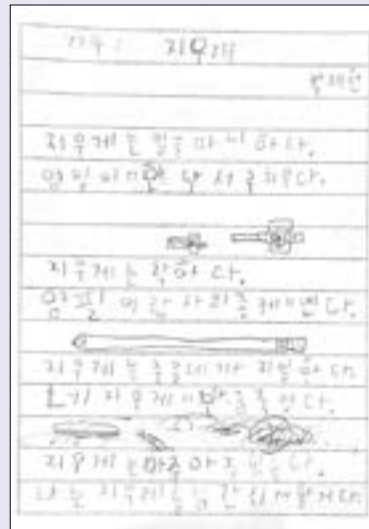
나의 새해 다짐



박재현



독해 활동지



[시] 지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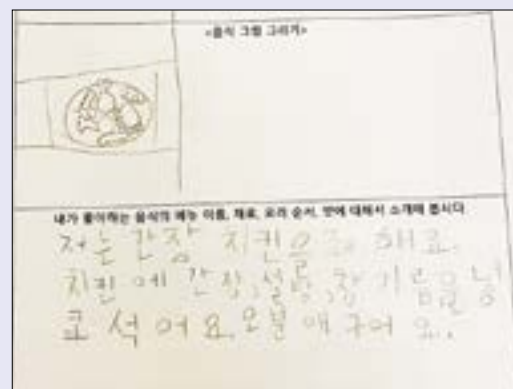
'김치의 날' 포스터



[글쓰기] 내가 참 좋아요



단청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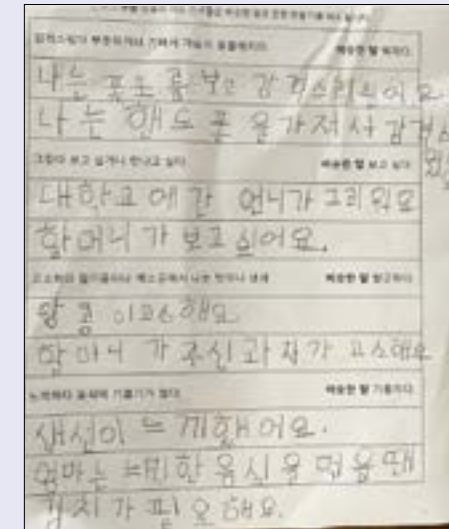
[좋아하는 음식] 간장 치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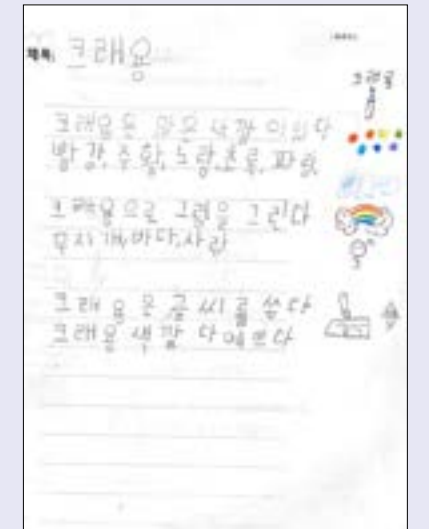
사자성어 활동지



박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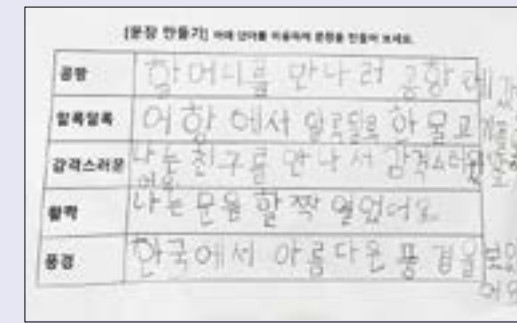
문장 만들기



[시] 크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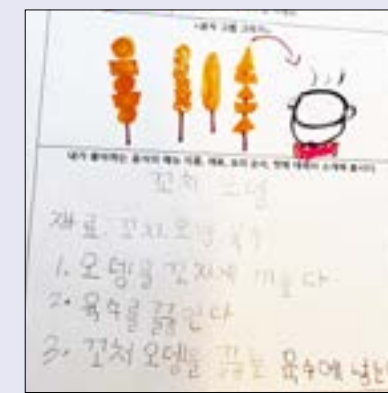
'김치의 날'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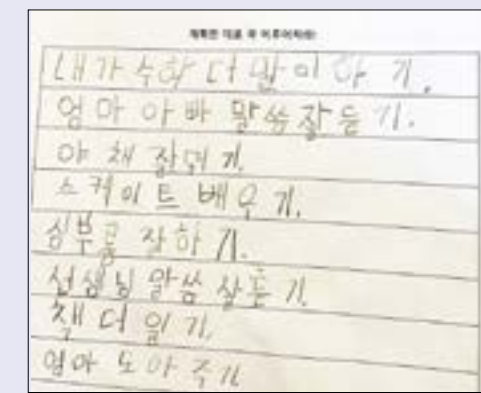
문장 만들기



단청 꾸미기



[좋아하는 음식] 꼬치 오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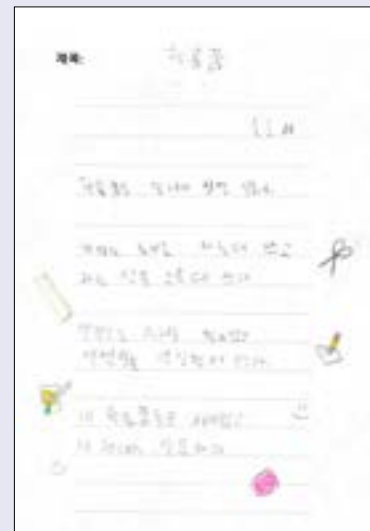
나의 새해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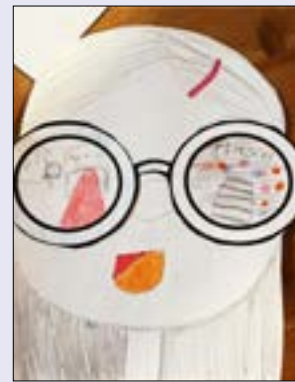
손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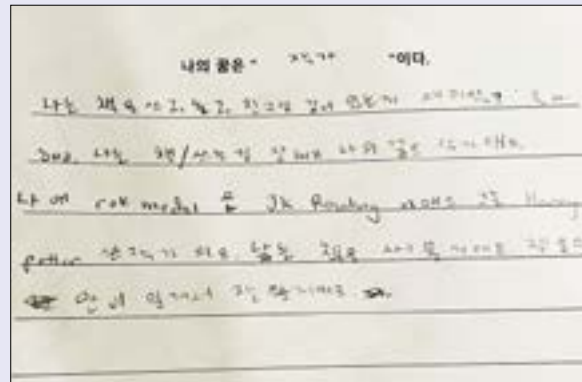
세종대왕 활동지



[시] 학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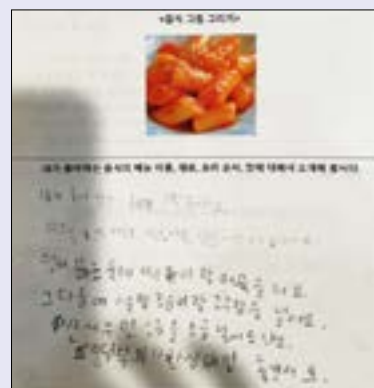
즐거운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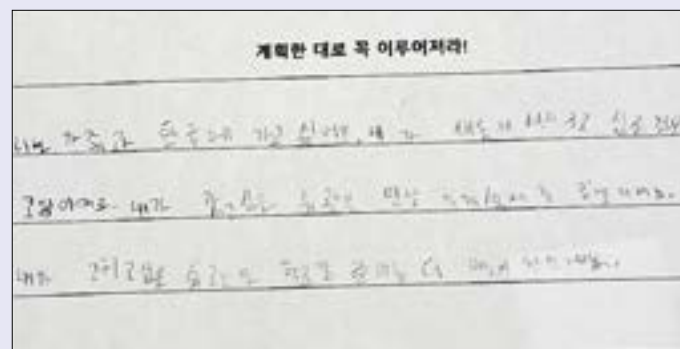
나의 꿈 작가



단청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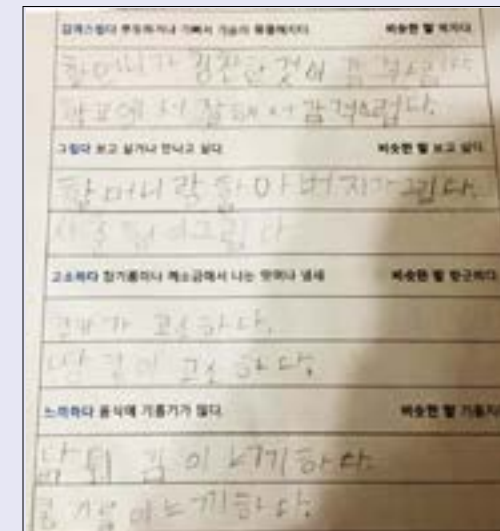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나의 새해 다짐



송주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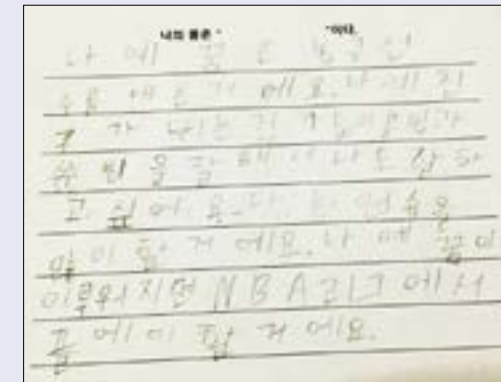
문장 만들기



[시] 스타이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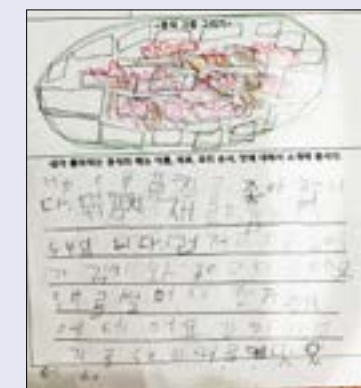
영화 감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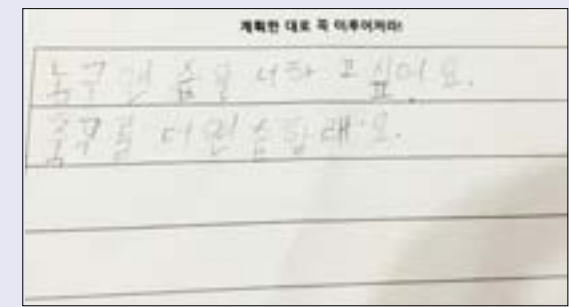
나의 꿈 농구 선수



단청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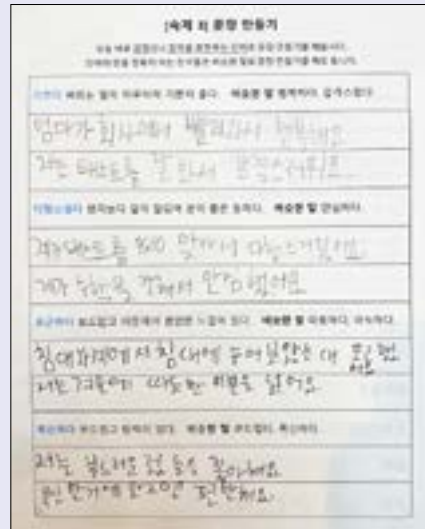
[좋아하는 음식] 두부 김치



나의 새해 다짐



유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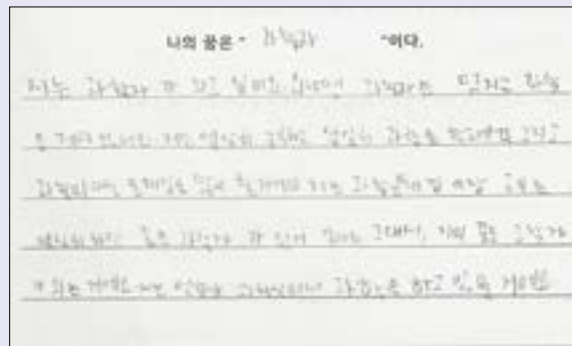
문장 만들기



[시] 지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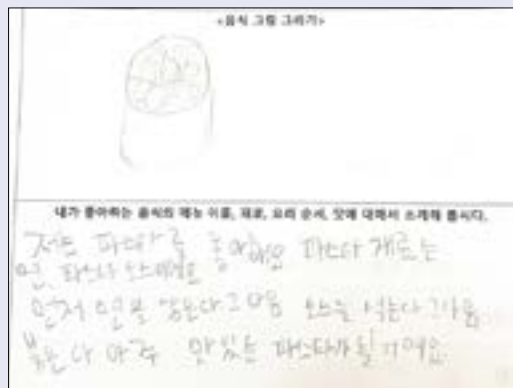
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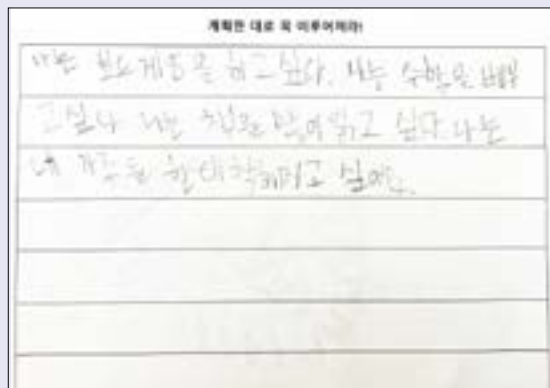
[나의 꿈] 과학자



단청 꾸미기



[좋아하는 음식] 파스타



나의 새해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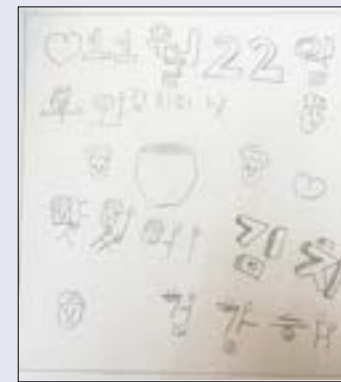
유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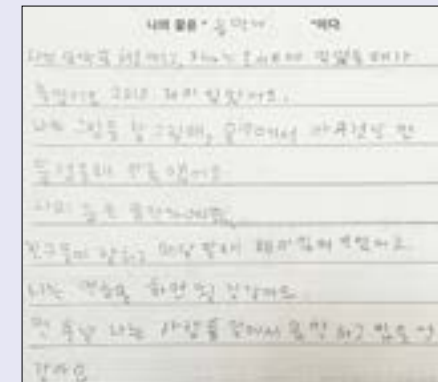
사자성어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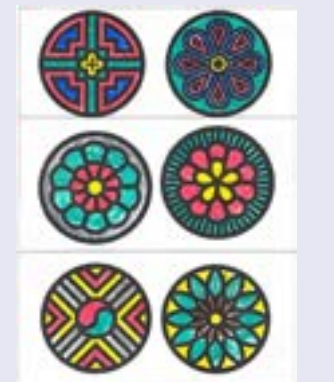
[시] 지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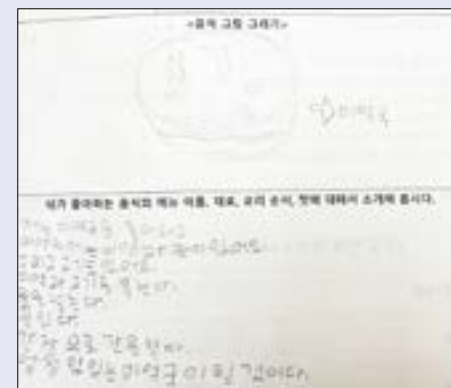
'김치의 날'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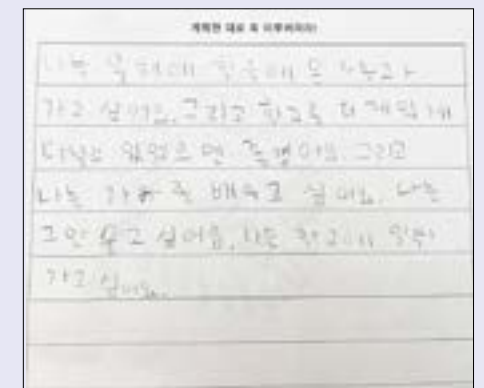
[나의 꿈] 음악가



단청 꾸미기



[좋아하는 음식] 미역국



나의 새해 다짐



윤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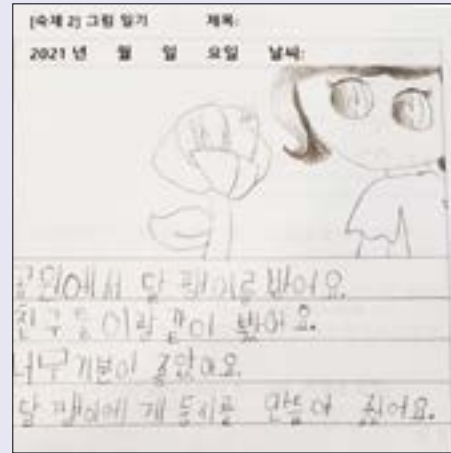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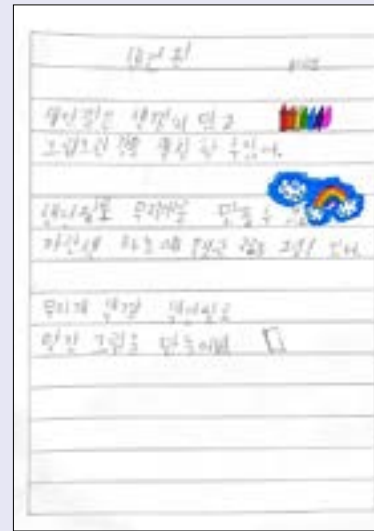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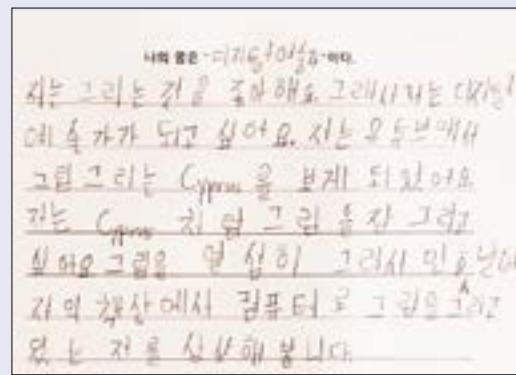
그림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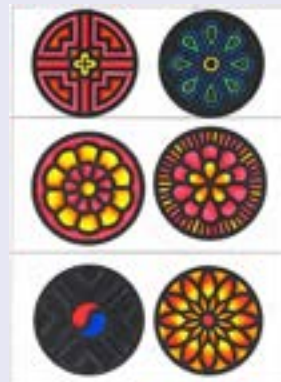
[시] 색연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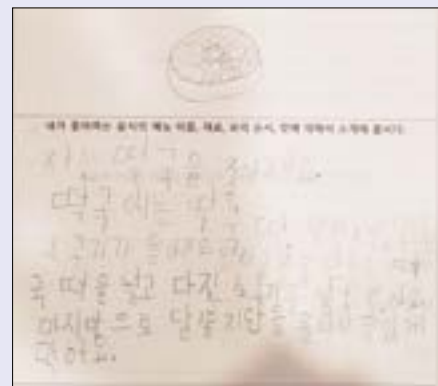
'김치의 날'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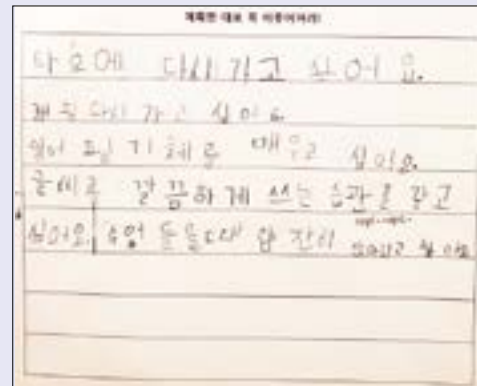
[나의 꿈] 디지털 예술가



단청 꾸미기



[좋아하는 음식] 떡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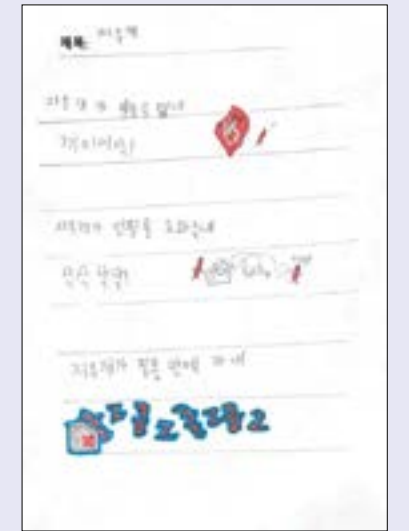
나의 새해 다짐



한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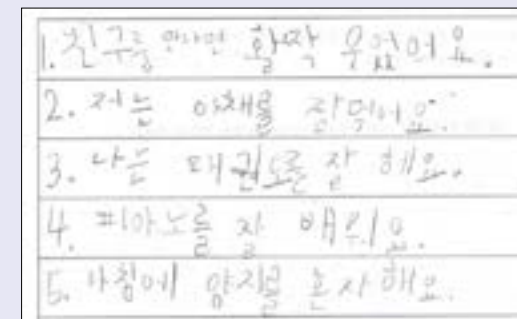
그림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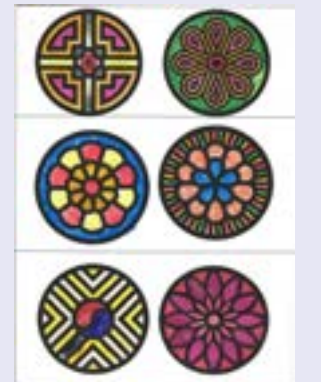
[시] 지우개



'김치의 날'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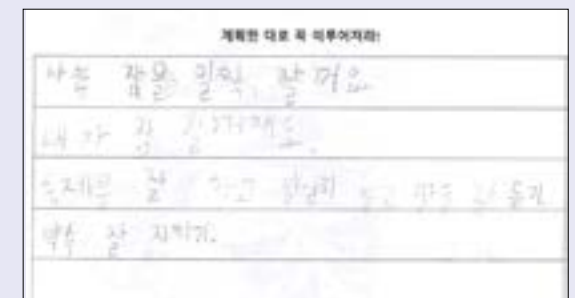
[글쓰기] 내가 가진 좋은 점



단청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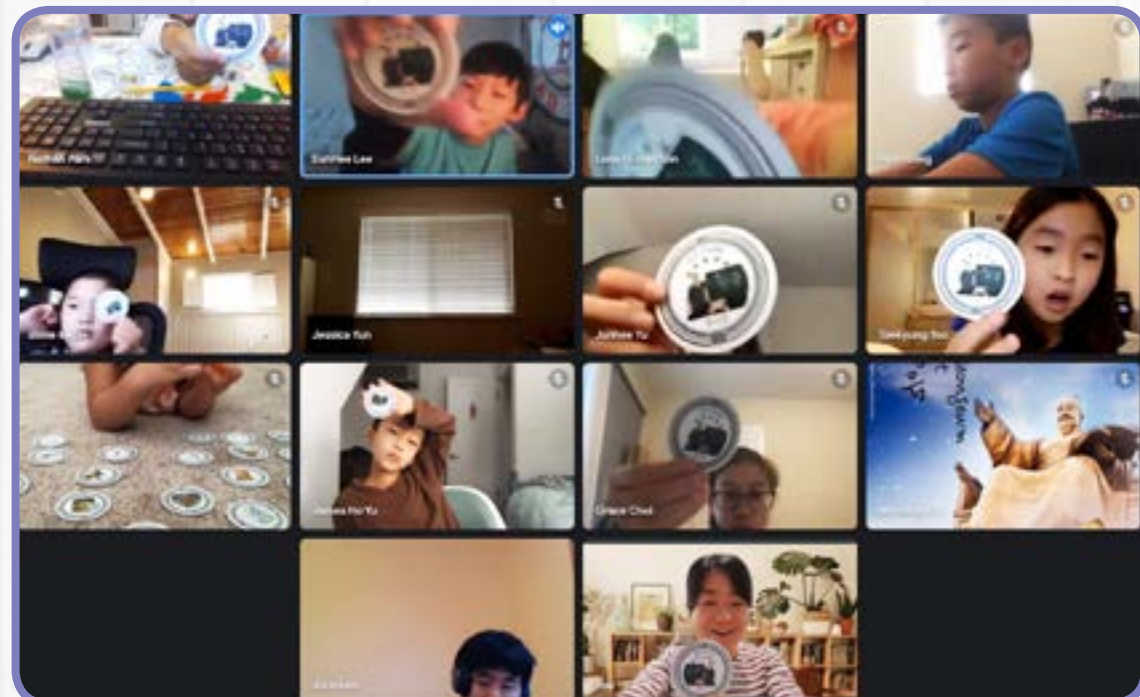


[좋아하는 음식] 플라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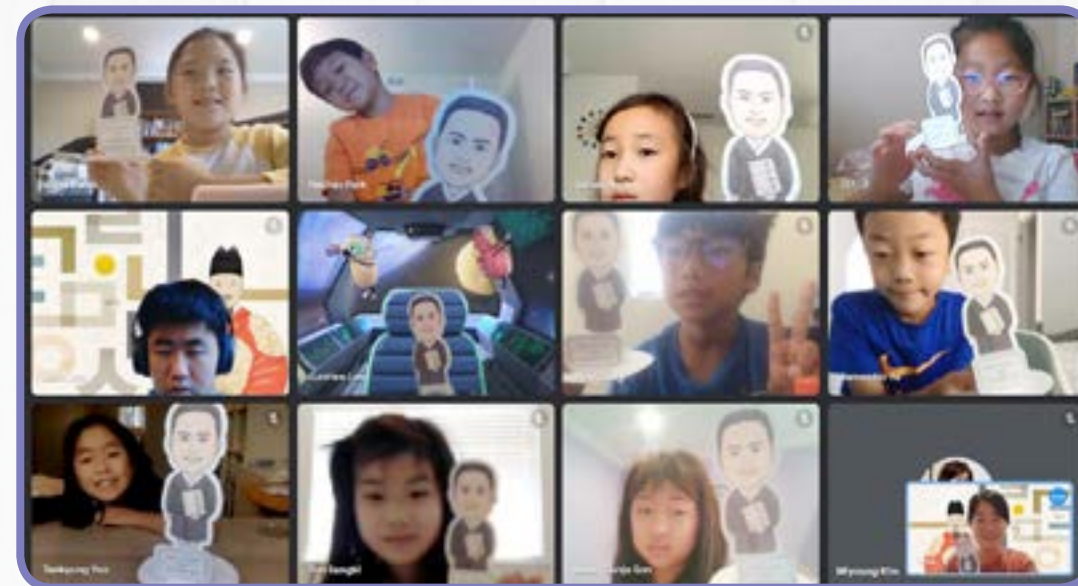
나의 새해 다짐

은유반
활동사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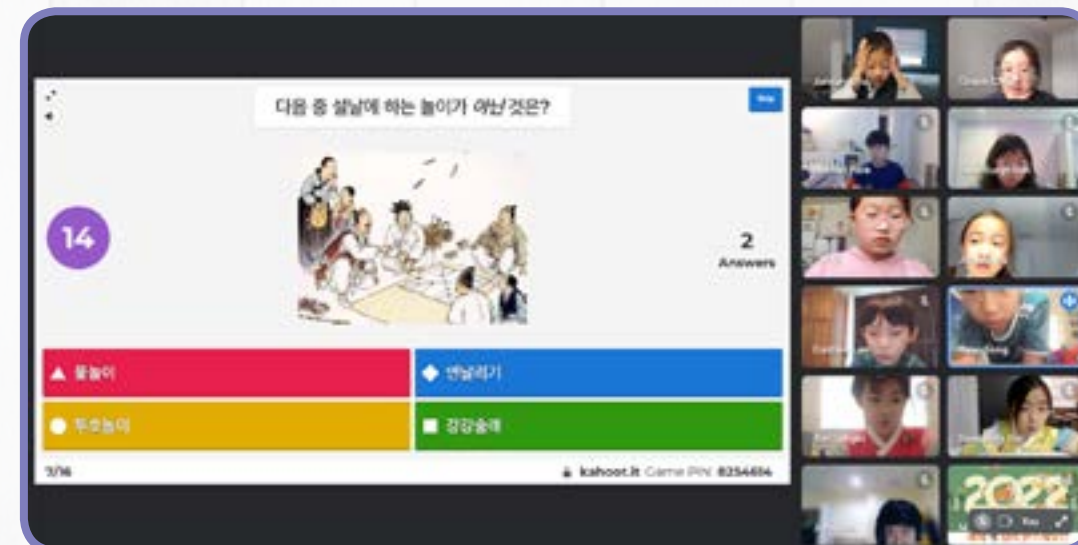


[한스타일] 딱지 놀이

은유반
활동사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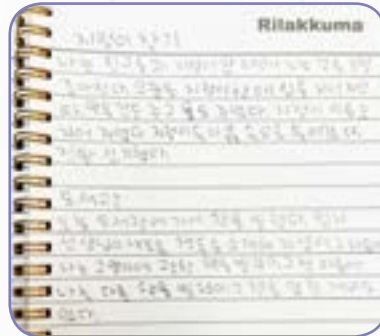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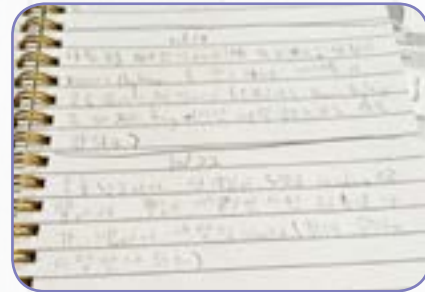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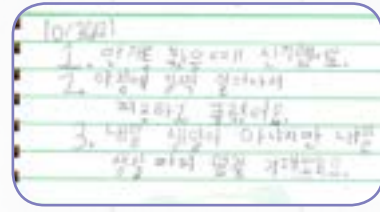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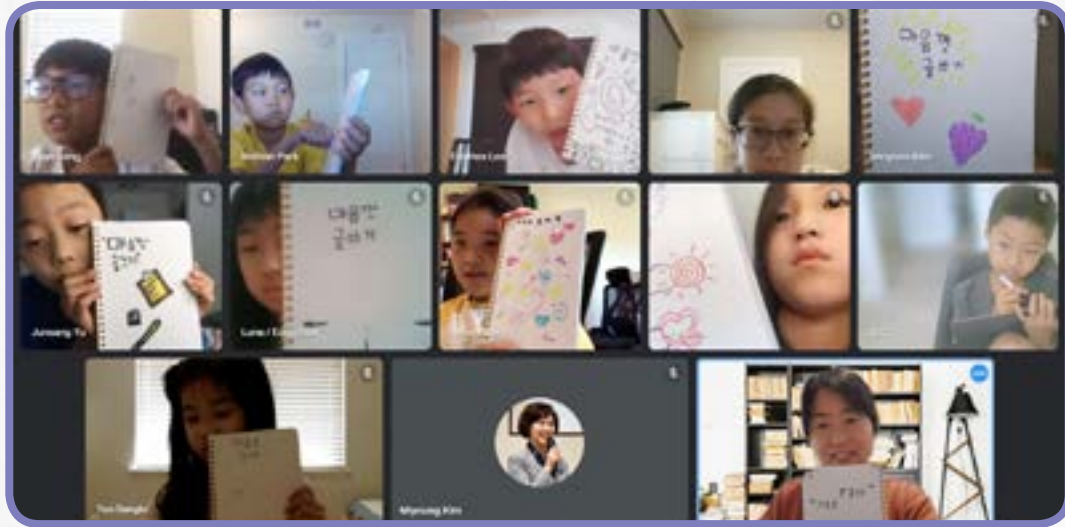


[만들기] 주시경 종이 인형



[퀴즈] 카훗

은유반
활동사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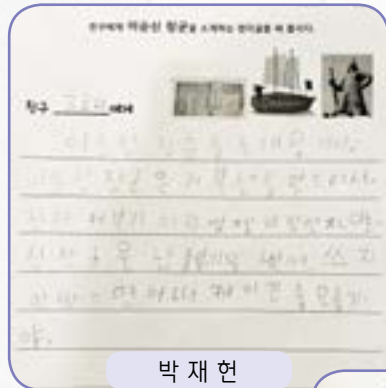
[글쓰기 노트] 마음껏 글쓰기

은유반
활동사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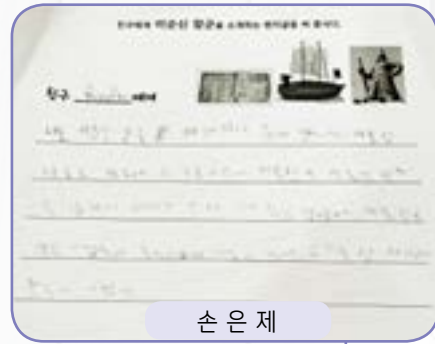


[지우개 활자 만들기] 이름 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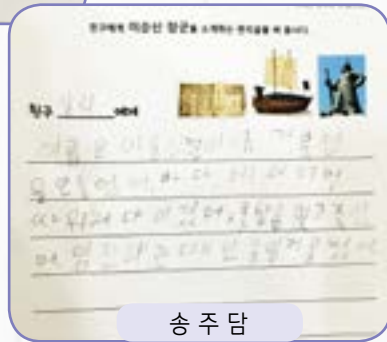
은유반
활동사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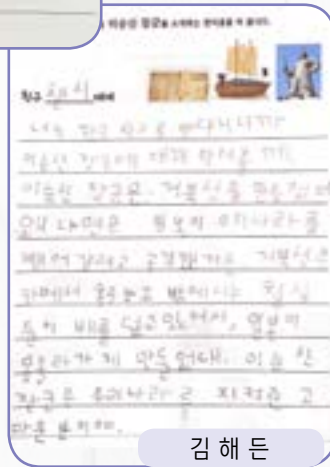
박재현



손은제



송주담



김해든

[이순신 장군] 거북선 만들기와 편지 쓰기

화평반



담임 교사 조은미



보조 교사 전이현

다솜 한국학교에서 화평반 아이들과 함께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개학식 때 부푼 마음으로 만났던 기억 새록새록한데 벌써 이렇게 보람찬 일 년을 보내고 여름방학을 맞았습니다. 화평반을 맡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3시간이라는 짧은 토막 토막의 시간을 쪼개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일 년 동안 책을 읽고 기록하는 “책숲”과 “책 동물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책을 소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책을 생산하고 또 즐기는 “나도 소설가” 프로젝트와 “책 오디오북” 프로젝트도 진행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 정말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따라와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화평반에는 정말 무지개빛깔처럼 다채롭고 소중한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반의 진지한 예술가 예준이, 독서왕 채린이, 최선을 다하는 주원이, 항상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예담이, 귀염둥이 아민이, 우리반의 분위기 메이커 재운이, 항상 이저저것 얘기를 많이 해주는 지우, 항상 1등으로 문제를 다 푸는 똑똑한 지웅이, 발표를 참 잘하는 준이, 묵묵히 열심히 하는 시온이, 독서감상문에 영혼을 불어 넣어 항상 감동을 준 다나, 수업시간에 열심히 듣는 새린이, 열심히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정윤이까지 너무나 복덩이들이 가득한 화평반이었습니다.

이번 일 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데에는 전이현 보조교사 선생님의 뛰어난 리더십이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 시작 전에 항상 재미있는 퀴즈를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매순간 아이들 곁에 항상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화평반 아이들의 인터뷰 영상 촬영에 촬영감독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정말 남다른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화평반을 위해서라면 항상 헌신해 주셨던 우리 전이현 보조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2021-2022학년도 화평반 친구들에게 지난 일 년, 참 재밌었던 일 년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담임 교사 조은미





나 예 준



[속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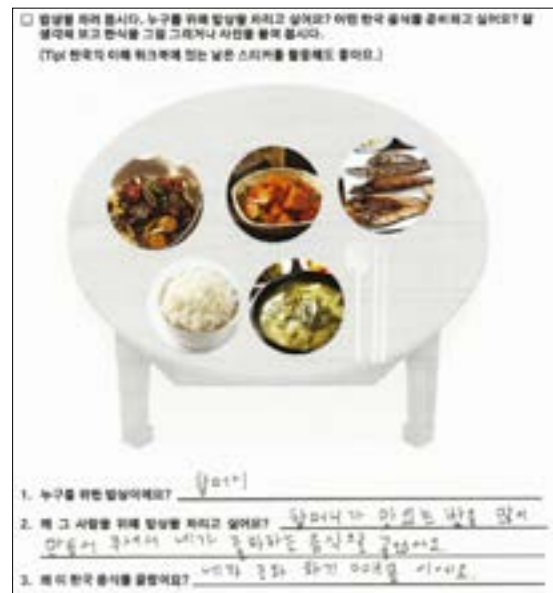
[독서 감상문] 로봇



새해 호랑이 카드 만들기



봄학기 특별활동 [책동물원]



할머니께 드리는 밥상 차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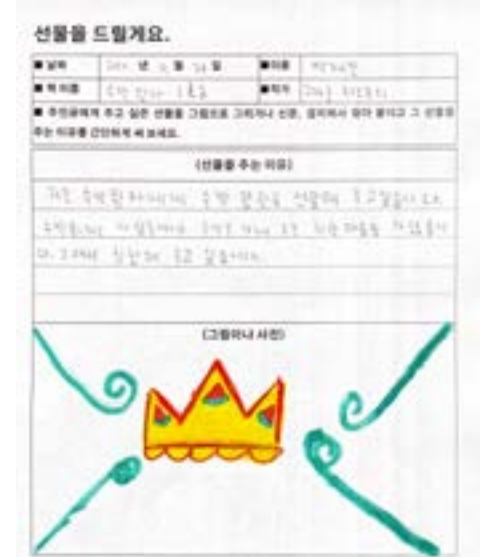
가을학기 특별활동 [책나무 숲]



박 채 린



[글쓰기] 나의 여름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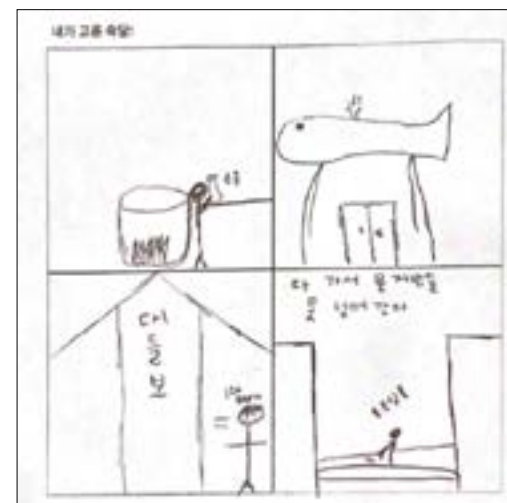
[독서 감상문] 수박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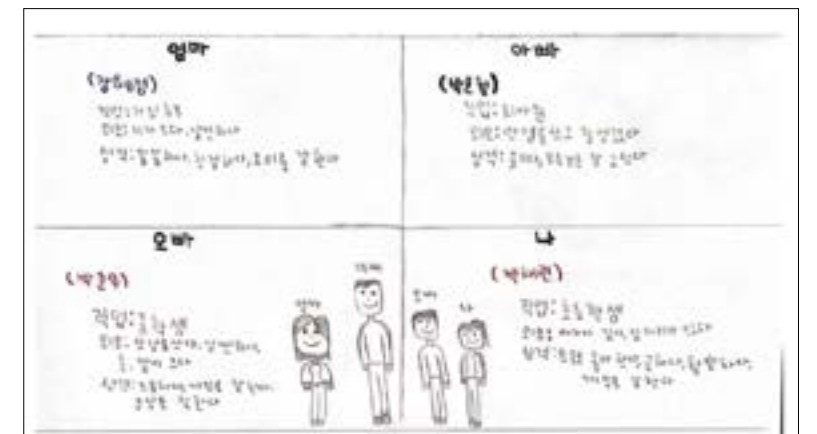
새해 호랑이 카드 만들기



가을학기 특별활동 [책나무 숲]



[속담] 다 가서 문지방을 못 넘어간다



[가족 소개 프로젝트] 우리 가족은요!



신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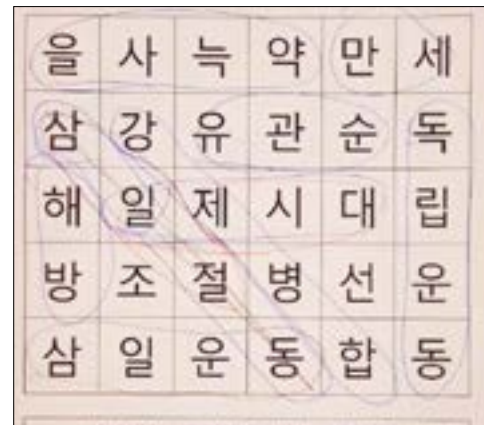
봄학기 특별활동 [책동물원]



가을학기 특별활동 [책나무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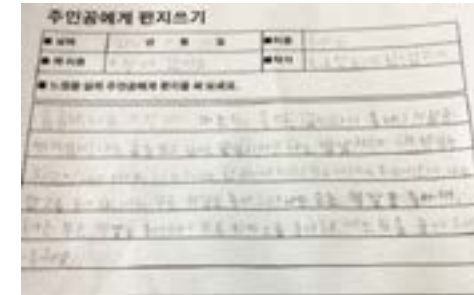
새해 호랑이 카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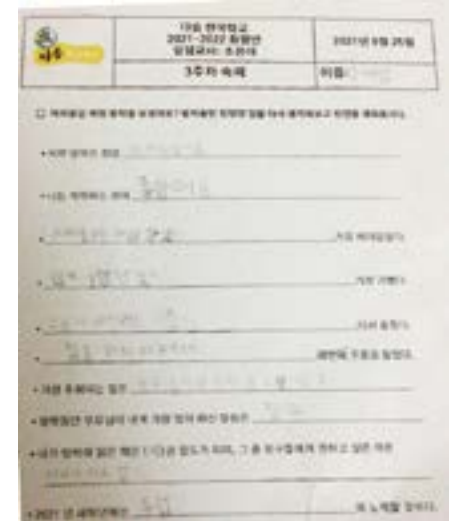
삼일절 활동 단어찾기



송예담



[독서 감상문] 시장에 갔어요



[글쓰기] 나의 여름방학



새해 호랑이 카드 만들기



봄학기 특별활동 [책동물원]



[속담] 부뚜막 위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가족 소개 프로젝트] 우리 가족은요!



안 아민



[글쓰기] 나의 여름방학



[독서 감상문] 할머니댁에 가는 길



새해 호랑이 카드 만들기



가을학기 특별활동 [책나무 숲]



[속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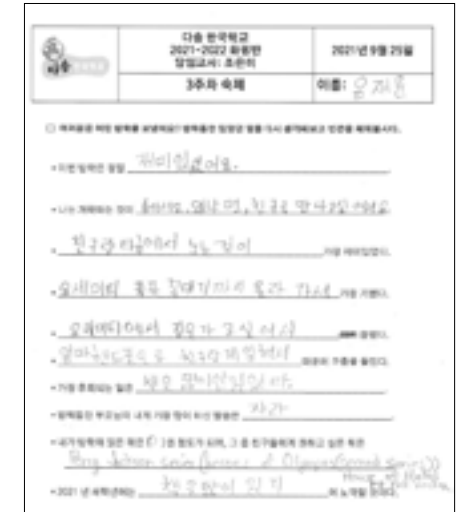
[가족 소개 프로젝트] 우리 가족은요!



윤 재 윤



[독서 감상문] 수박왕자



[글쓰기] 나의 여름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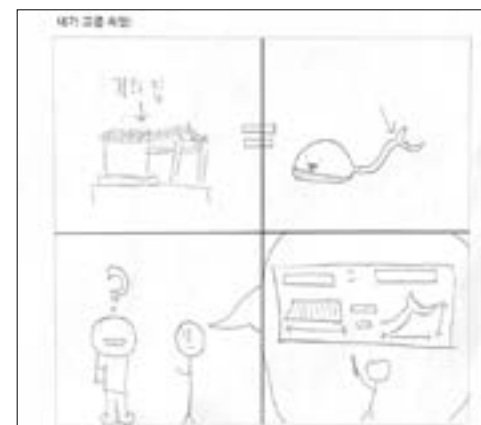
[독서 감상문] 미안해, 사하르



새해 호랑이 카드 만들기



봄학기 특별활동 [책동물원]



[속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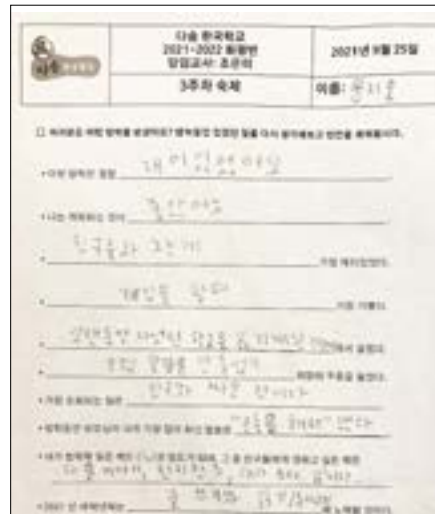
[가족 소개 프로젝트] 우리 가족은요!



윤지웅



[독서 감상문] 지구와 달



[글쓰기] 나의 여름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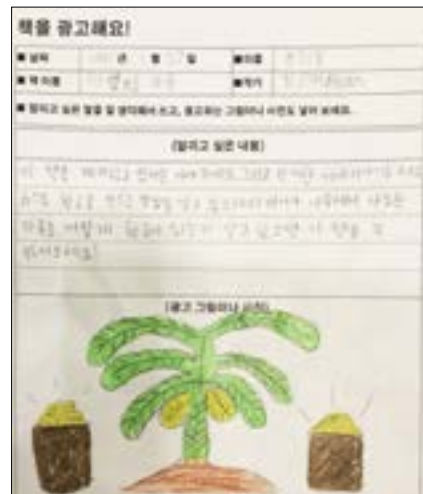
엄마께 드리는 밥상 차리기



봄학기 특별활동 [책동물원]



[속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독서 감상문] 마법의 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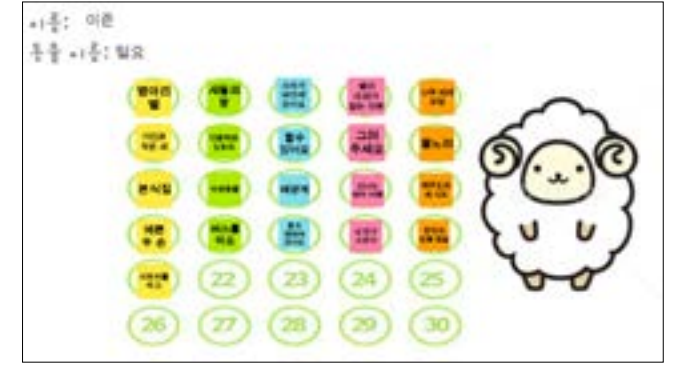
[가족 소개 프로젝트] 우리 가족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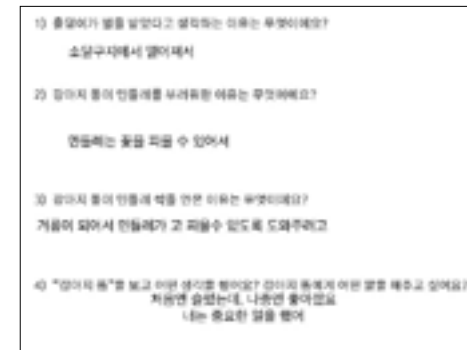
이준



새해 호랑이 카드 만들기



봄학기 특별활동 [책동물원]



['강아지동' 책읽고 글쓰기]



가을학기 특별활동 [책나무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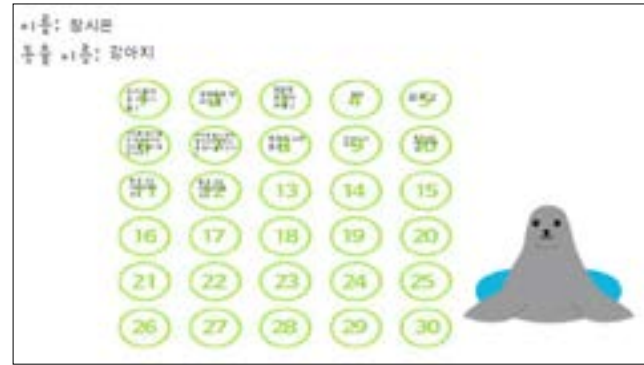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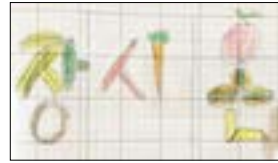
[글쓰기] 나의 여름방학



[가족 소개 프로젝트] 우리 가족은요!



장 시 은



봄학기 특별활동 [책동물원]



새해 호랑이 카드 만들기



가을학기 특별활동 [책나무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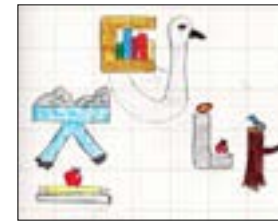
[글쓰기] 나의 여름방학



[가족 소개 프로젝트] 우리 가족은요!



조 다 나



[독서 감상문] 이상한 만두 장수



[독서 감상문] 암송아지와 황소



새해 호랑이 카드 만들기



가을학기 특별활동 [책나무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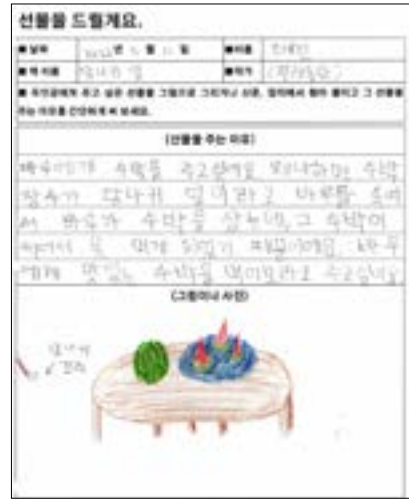
[속담] 부뚜막 위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가족 소개 프로젝트] 우리 가족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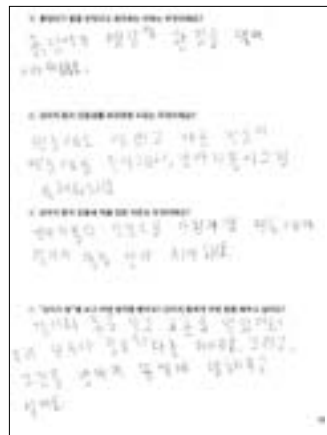
조새린



[독서 감상문] 당나귀 알



[글쓰기] 나의 여름방학



['강아지똥' 책읽고 글쓰기]



가을학기 특별활동 [책나무 숲]



[속담] 다 가서 문지방을 못 넘어간다



[가족 소개 프로젝트] 우리 가족은요!



이정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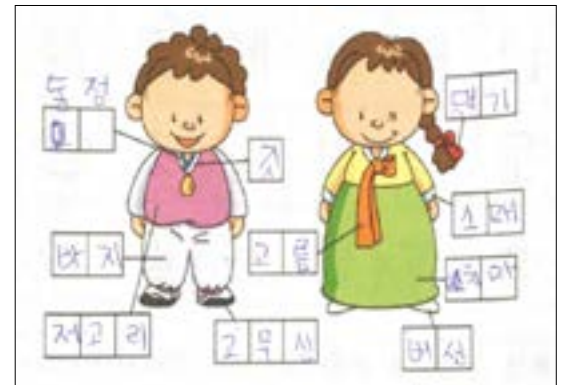
봄학기 특별활동 [책동물원]



한복 명칭 쓰기



윤지우



한복 명칭 쓰기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마법의 트램폴린
작가: 조세민, 박재민, 박희민, 박희민

가격 = \$ 14.99

이야기 ①

한눈에 들어오는 햇살이, 맑은 공기와 연꽃이가 한층더
원근로 펼쳐지고, 일렁이는 그늘과 함께 감칠맛이 나는
것을 만끽하며, "후~ 참 좋다" 하며 여유가 풀린다. "어, 후
꽃이, 꽃이, 트램폴린이 보이네" "생각이 다른 것일까"
"아, 그야말로 트램폴린이 보이네!" "후~ 트램폴린에서
뛰어놀고, 그늘도 시원하고, 하늘이 정말이름 좋다."
"뛰어놀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지않았을 줄까"
"트램폴린으로 뛰어놀고 싶지만, 그늘이 너무 시원해서
뛰어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시원해요. 정말이름 좋다."
"후~ 정말이름 좋다. 정말이름 좋다. 정말이름 좋다."
"후~ 정말이름 좋다. 정말이름 좋다. 정말이름 좋다."

이야기 ②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이야기 ③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이야기 ④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2021 가을학기 특별활동 [나도 소설가]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다른 세상
작가: 조다나, 이준, 정시은, 윤지우

가격 \$14.99

이야기 ①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이야기 ②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이야기 ③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이야기 ④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이야기 ⑤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사람들
말

2021 가을학기 특별활동 [나도 소설가]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이야기 ①



이야기 ②



이야기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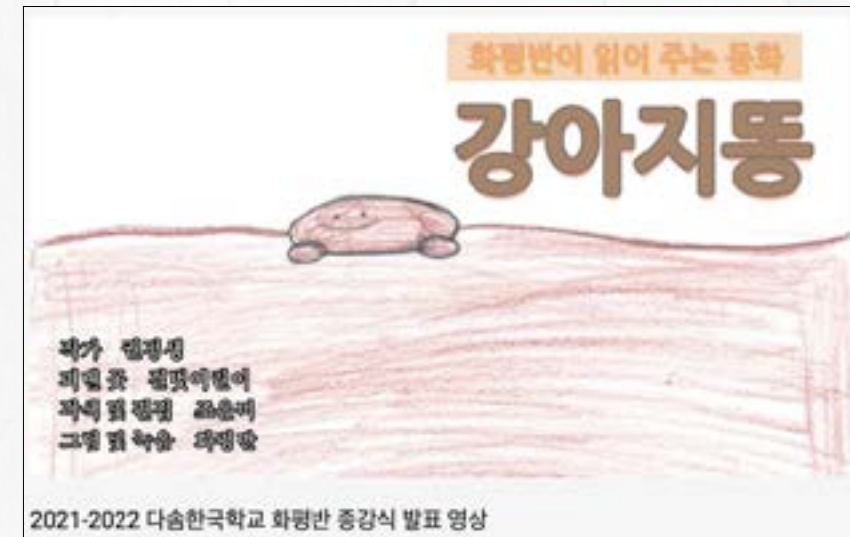


이야기 ④



2021 가을학기 특별활동 [나도 소설가!]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윤지웅



신주원



안아민



이준



이정윤



조새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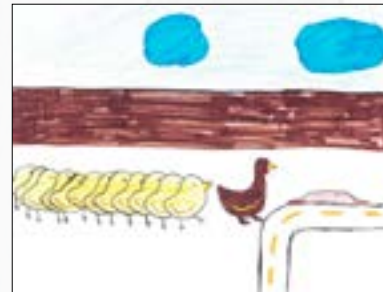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송예담



윤지우



박채린



윤재윤



조다나



장시은



나예준

열매반



담임 교사 박은경



보조 교사 한동진

우리 열매반은요... 예수님의 포도 나무에 열린 포도 열매 같은 알차고 진한 향기를 풍기는 다솜한국학교의 맛깔나고 아름다운 반이랍니다. 열매반 2기라 할 수 있는 2021-2022학년도 학생들은 제가 상급반을 담임한 여러 해 동안 만난 학생들 중에서 공동체로서의 멋진 하모니와 아름다운 화합을 이룬다는 점에서 가장 특별했던 반이었습니다.

가을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아침조회에서 만나 속담과 사자성어 공부를 시작으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등 한스타일 문화와 추석, 독도의 날, 설 행사 등 절기와 계기 교육을 통해 한국인의 다양한 생활 양식을 배웠습니다. 특히, 열매반 학생들이 설날과 한복에 대해 전체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강의 못지 않은 발표를 해준 것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봄학기 동안 대면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스펠링 비 대회, 안중근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풀며 쌓은 돈독한 우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이 모인 반이기에 다소 개인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다소 서먹할 수 있는 상황에도 밝은 분위기를 주도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민건이와 지윤이, 수업에 있어서 '성취와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유와 소은이, 8~9학년 선배들과 6학년 후배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로 모범을 보이는 준우와 아라와 강현이, 형만한 아우 없다는 진리를 보여준 우주와 태양, 말없이 힘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준 하은이와 하진이가 함께 했던 열매반의 지난 일 년은 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자란 풍성한 열매를 보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보조 교사도 열매반의 자랑입니다. 온라인 수업 때는 학생들의 말하기 내용을 직접 한글로 입력해주고 쓰기 부분에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게임이나 토론, 개인 지도를 리드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컴퓨터 세팅과 복사, 예시 활동이나 번역 활동, 교사의 빈 자리를 망설임이나 주저함없이 촘촘하게 메워 열매반 수업의 주체가 되어 준 한동진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보조 교사와 열매반 학생들 열두 명의 제자와 함께 할 수 있어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공동체의 힘을 다함께 느끼며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힘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사랑과 기쁨의 마음을 담아 열매반 학생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름방학 보내고 몸과 마음이 한 뼘씩 자라서 가을에 다시 기쁨으로 만나길 기도합니다.

담임 교사 박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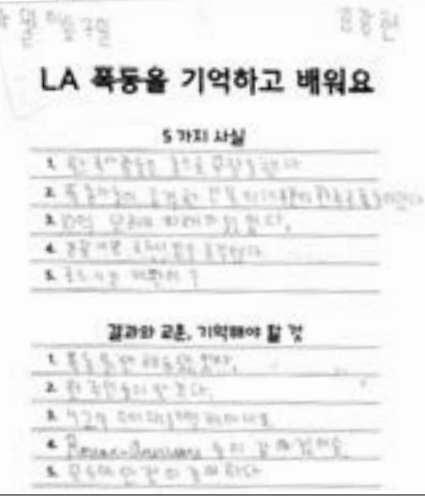
내가 좋아하는 서울의 명소

서울에 있는 서울시립 미술관을 꼭 가보고 싶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그린 미술 작품을 구경하는 것이 좋아요. 이 미술관이 덕수궁 돌담길, 정동, 서울에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 가면 미술 그린 작품들을 꼭 다 한 번 볼 거예요. 제가 추천해주는 거 아니구요. 저의 숙모가 저한테 추천해 줬어요.



[추석 송편 만들기]

김강현



[나도 이모티콘 작가]

김민건

겨울방학 이야기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이지만 내가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달고나 뽑기"를 하였다. 나에게도 오늘 이 뽑기가 처음치고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별의거의 다 뽑기 전에 달고나를 박살 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동생이 나에게 가짜 투명총을 줬다. 그리고 나는 몇 분동안 죽은 척을 했다. _12.31.3021

나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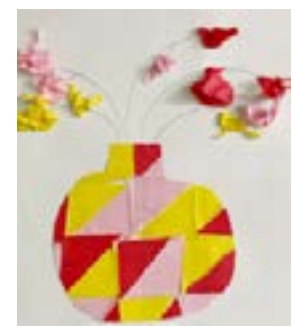
저는 책을 읽을 때나 게임을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싶으면 숙제를 다해야 되지만 책은 언제나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힘든 순간은 게임에서 보스가 나올 때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 게임만 하면 돈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한복은 한국의 옷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구려 시대부터 우리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한복을 자기네 나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자기네 전통 의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복은 한국의 옷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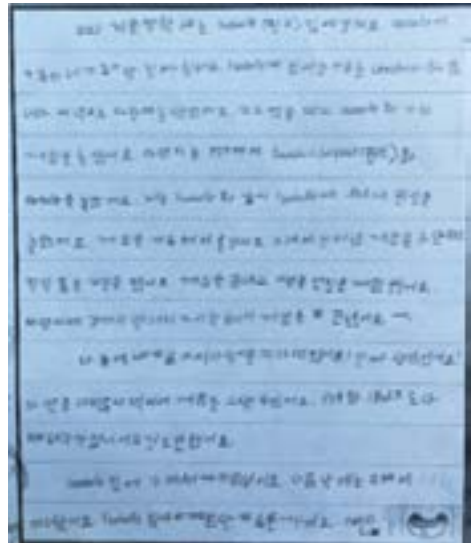
개교기념일 소감

오늘 한국학교에서 한국학교 18주년을 기념해 민속놀이를 했다. 거기에서 나는 투호놀이가 제일 좋았다. 왜냐하면 우리 팀이 3:0으로 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나 덕분일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우리 팀에서 나만 혼자 응원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무튼 참 재미있는 날이었다. _3/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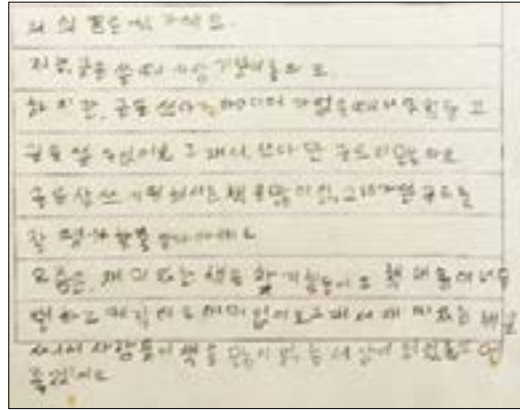


◀ 작품들

안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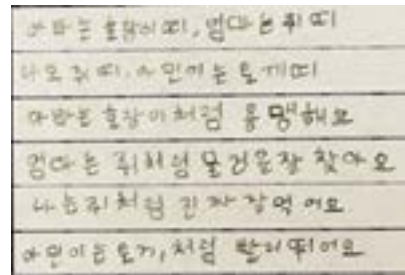
[겨울방학 이야기]



[나의 꿈]

나의 이웃사촌

나의 이웃사촌을 소개합니다. 산호세에 이사 와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운이를 만났어요. 지운이네가 이시간 곳이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아빠 친구 가족과 지운이네와 한 달에 한 번 다같이 만나요. 아빠 친구의 첫째 딸 이름은 이사벨이고, 지운이와 나이가 같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멀리 사는데 지운이와 이사벨은 가까이 살아서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설날 동시]

◀ 작품들



장우주

나의 꿈

저 꿈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는 병을 고쳐주는 직업이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 나도 이모티콘 작가



◀ 작품들



오태양



[사자성어]



[독도의 날 / 미니북]

나의 꿈
저는 김치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의 꿈]



[나도 이모티콘 작가]



[한글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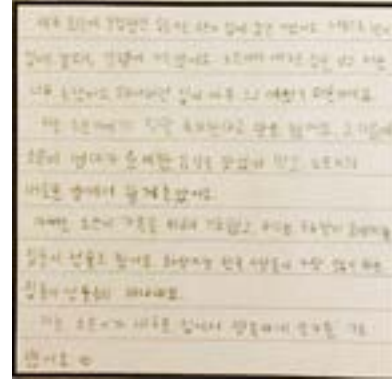
윤지유



[주시경 선생님]



[호머 헐버트 선교사]



[집들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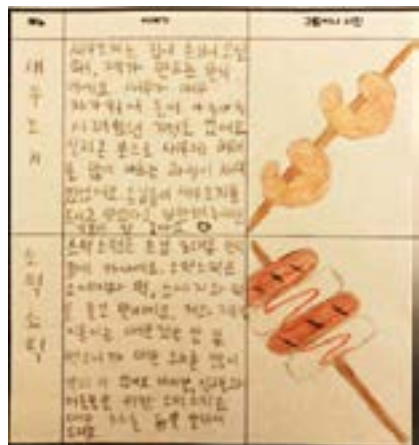
저의 꿈은 책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저는 좋은 그림을 볼 때와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아요. 그 중에서 동물과 식물 그림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자주 그려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을 많이 보고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예요.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배우고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힘든 순간은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와 사진이 이상하게 나올 때예요.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지우고 다시 그리고를 반복하면 기분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가끔씩 사진을 찍을 때, 손이 계속 떨려서 사진이 흐리게 나오면 속상해요. 하지만 힘들때보다 기분이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제가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저의 그림책을 볼 때, 재미있어하고 차치럼 나중에 책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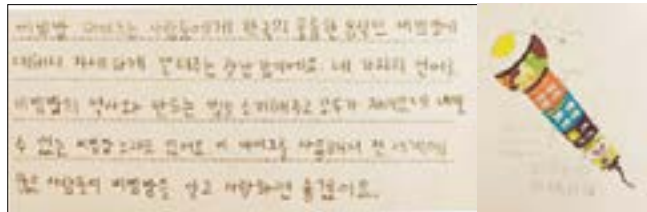
[나의 꿈]



[우리 집 한식 레시피]



[우리동네 소개-서니베일]



[비빔밥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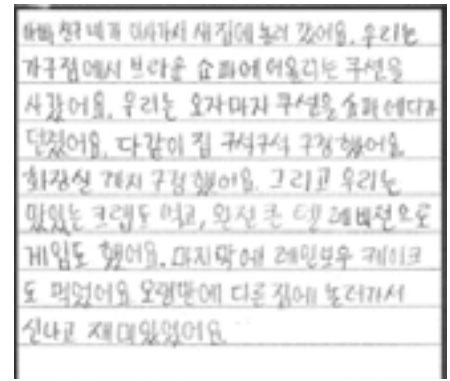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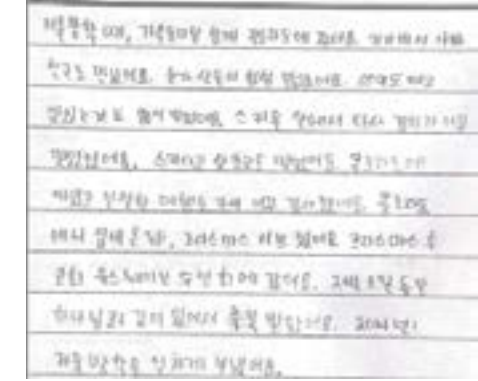
윤지윤



[호머 헐버트 선교사]



[집들이 이야기]



[겨울방학 이야기]

주장하는 글쓰기

우리 학교에는 크리스천 동아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이란 좋은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쁜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 크리스천 동아리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우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설교를 듣고 인생을 바꾸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크리스천 동아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날 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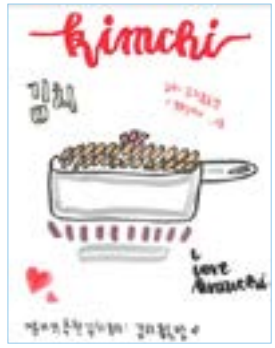
[한옥 마인드맵]



[나도 이모티콘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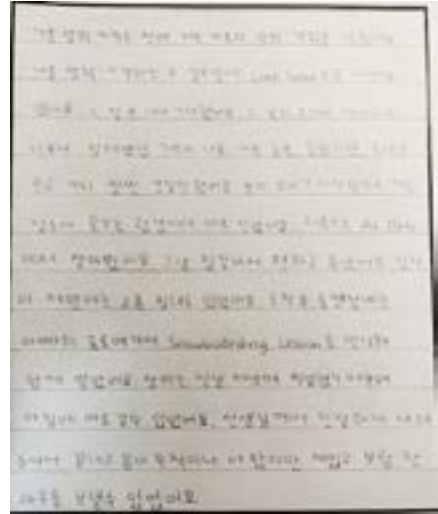
[작품들]



장하진

나의 꿈

최근에 저는 아이스 스케이팅을 재시도하였어요. 과거에 짧게 스케이팅 수업을 들은 적은 있으나 인트로 수업에 가입했어요. 아무래도 인트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수업이 무척이나 쉬운 데다가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듣는 수업이라 저와 키 차이가 매우 컸어요. 그래도 싫지는 않았어요. 이 기회가 온 참에 잘 이용해서 기초를 단단히 익히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스케이팅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김연아 덕분이예요. 김연아의 우아한 움직임에 맞춰 저의 미음도 움직여졌는지 피겨 스케이팅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번 2022년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피겨만큼은 반드시 노력해서 맘껏 탈 수 있게끔 열심히 배우기로 마음의 다짐을 해봤어요.



[겨울방학 이야기]



[우리 동네 소개 - 쿠퍼티노]



[한글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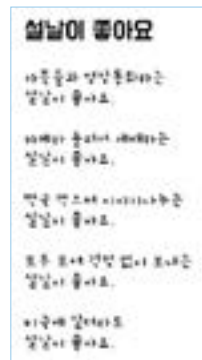
[독도는 우리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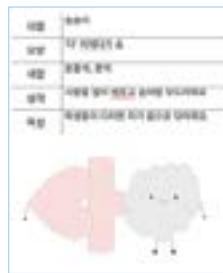
[인생 네 컷 이야기]



[비빔밥 캐릭터]



[설날 동시]



[작품들]

어머니날 풍선 카드



김강현



김민건



박준우



남소은



안아라



윤지유



윤지윤



장하진



감사패

열매반이 전하는 **다솜** NEWS CUE SHEET



남하은 안녕하세요? 다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솜한국학교 종강식과 졸업식이 있는 기쁜 날입니다. 오늘의 첫 뉴스는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회부의 윤지유 기자와 남소은 기자가 소식을 전합니다.

윤지유 안녕하세요. 사회부 기자 윤지유입니다. 저는 팬데믹에 바뀐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 바뀐 생활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화평반 박채린 학생은 팬데믹 때문에 농구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게 되어 좋았다고 했고 우리 모두의 얼굴에 마스크 자국이 생겼다는 것을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최미영 교장 선생님을 인터뷰 했는데요.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지윤 학생은 팬데믹 동안 마스크를 쓰게 되어 불편했지만 학교에서 체육을 안하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는 것과 과학 캠프를 못한 것이 속상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동안 바뀐 생활에 잘 적응해서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 윤지유 기자였습니다.

남소은 안녕하세요? 사회부 기자 남소은입니다. 저는 총 다섯 분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윤지윤, 김민건, 전이현, 권민호, 그리고 홍지연 선생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첫째, 주변 아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나? 둘째,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데일리 루틴을 간단히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코로나에 감염된 뒤 제일 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윤지윤 학생은 학교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점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많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김민건 학생의 학교 친구도 감염되어 학교를 못가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하루종일 TV만 봤다고 합니다. 권민호 보조선생님의 학교 친구도 감염이 되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장점은 학교를 안가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고, 숙제 걱정을 안해도 되고 많이 놀아서 좋았다고 합니다. 전이현 보조선생님은 어머니께서 감염되셔서 가게를 위해 도와주는 서비스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어머니의 소중함을 또다시 느낄 수 있어 좋았지만 이현 선생님의 활동들이 제한되어 불편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지만 건강하게 잘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조심성 없이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 모두 팬데믹 끝날 때까지 항상 조심하여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남소은 기자였습니다.

남하은 다음 소식은 다솜한국학교의 대통령 최미영 교장 선생님을 교육부 김민건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민건 기자 나와주시죠.

김민건 안녕하세요. 교육부 기자 김민건입니다. 저는 다솜한국학교에서 18년 동안 봉사하고 있는 최미영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만나 보았습니다. 먼저 다솜한국학교를 세우시게 된 계기를 질문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미국계 한국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싶어서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한국학교를 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아주 어린 학생들이 입학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 인사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국말을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배우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나 질문을 하면서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미영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상 김민건 기자였습니다.

남하은 이번에는 지난 1년 동안 배우 한스타일에 대해 문화부 장하진 기자가 학생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장하진 기사를 불러 보겠습니다.

장하진 문화부 기자 장하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문화 관련 강의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과 활동들에 대해 온유반 학생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온유반 학생들은 한복과 한옥에 대한 강의를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와집, 대청마루, 사랑방, 처마에 대한 것을 새로 배웠다고 합니다. 지난 18주년 개교기념행사에서 했던 놀이 중에는 투호놀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인기있는 전통놀이 뽑혔습니다. 그 외에 널뛰기 윷놀이도 즐거웠다고 합니다. 온유반 한서진 학생은 조화 시간에 푸는 퀴즈가 재미있고 캔디 상품을 받아 기분이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한옥에 대한 강의에서는 초가집의 지붕이 다르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수업에서 배웠던 사자성어와 속담도 좋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 배우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즐겁게 기억되고 한국을 자랑스럽게 널리 알리는 다솜한국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장하진 기자였습니다.



남하은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다함께 '혀 꼬이는 문장'을 따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오태양과 김민건: 기쁨반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장우주와 박준우: 충성반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김강현과 장하진: 온유반 [인천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부천 간장 공장 공장장은 양 공장장이다]
 안아라와 윤지유: 화평반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니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이다]
 윤지윤과 남소은: 열매반 [경찰청 쇠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쇠창살 쌍철창살]

남하은 모두 혀를 잘 푸셨나요? 다음 뉴스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다솜한국학교를 후원하는 골프 대회에 대하여 스포츠부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준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박준우 안녕하세요, 스포츠부 기자 박준우입니다. 저는 지난 3월 26일 다솜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를 다녀오신 박윤철 집사님을 취재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32(서른 두)분이 참석하셔서 지금까지 열린 골프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골프 토너먼트 우승자는 한 명인데 실력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여러 가지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상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골프도 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한국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사에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솜한국학교를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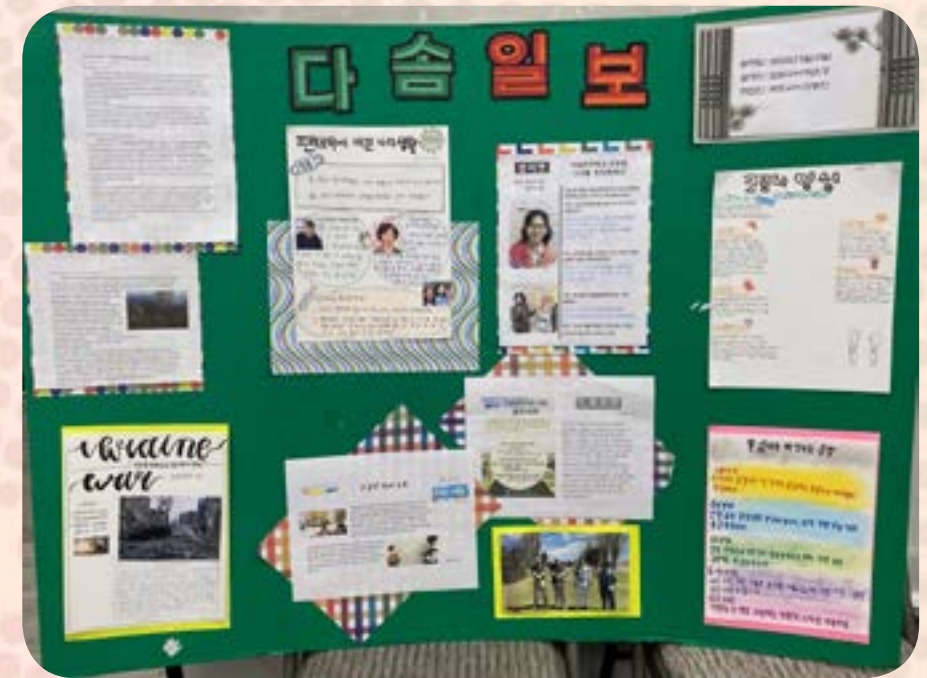


남하은 이어서 다음 소식은 국제 소식을 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소식을 국제부 윤지윤 기자와 안아라 기자가 함께 전합니다.

안아라 국제부 기자 안아라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차지하기 위해 침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NAT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막기 위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군인과 시민들이 많이 죽었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강하고 위험한 탱크와 미사일, 폭탄들을 사용하여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욱 커져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리더십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윤지윤 기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윤지윤 국제부 기자 윤지윤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탈출을 도와주겠다는 미국의 도움을 거절하면서 "전쟁은 여기 있다. 나는 탈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며 직접 나라를 지키는 리더십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젤렌스키의 이러한 리더십으로 많은 남자들이 가족들을 대피시키고 다시 전쟁터로 향하는 애국하는 모습에서 전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현재 러시아 사람들도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피해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과 위험 속에서 애국심을 가진 분들 덕분에 오늘이 있음을 기억하며 위기 속에서도 강한 대한민국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윤지윤 기자였습니다.

남하은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뉴스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여름방학 되십시오. 저는 앵커 남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이 되었어요!



졸업생 장우주

저는 다솜한국학교를 5년 다녔습니다. 5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학교를 왔는데 이제 한국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학교를 다니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김치 만 들기였습니다. 저는 애국가를 피아노로 반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보조교사가 된다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국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저에게 공부를 가르치시며 내 행동을 잡아주신 최미영 교장선생님, 원은경 선생님, 장신복 선생님, 박은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남하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하게 된 열매반 남하은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년 전 팬데믹 속에서 다솜한국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수업을 듣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당황했습니다. 이런 저를 저의 담임 선생님인 박은경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매주 친절한 말들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저와 다른 친구들을 위해 항상 힘쓰신 박은경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솜한국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좋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귀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한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힘썼는지 가르쳐줬고 그분들처럼 조국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는 꿈도 품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솜한국학교는 잊어버리면 안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주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졸업하는 학생으로서 남은 학생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교육뿐 아니라 역사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학교

글_오정현 (졸업생 남하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다솜한국학교를 졸업(수료)하는 남하은의 엄마 오정현이라고 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한국학교 경험을 하지 못할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잘 다니게 되었고 한국학교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은이에게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말이 아직 와닿지는 않긴 하지만 커가면서 점점 느끼게 되겠지요.

우리 가족은 5년 전 한국에서 이민을 오게 되었고 하은이는 한국에서 4학년을 마치고 5학년 한 달을 다니고 미국에 왔기에 엄마인 저에게는 한국어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당면한 영어가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솜 한국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학부모님께서 말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데 다솜만한 곳이 없다며 추천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저의 좁은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한 달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하은이 동생 소은이의 한글 실력을 보고 한국학교를 빨리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소은이가 한국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다솜의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고 하은이에게도 다솜 한국학교가 한글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하은이가 한국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하은이에게 한국학교의 입학에 제안을 하자 생각보다 하은이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거의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한 보조교사를 하고 있었기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하은이가 한국학교를 시작했던 시기가 팬데믹이라 온라인 수업으로 한 것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온라인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선생님의 수업 커리큘럼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참여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는 마침내 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졸업 소감문에서 하은이가 솔직히 썼듯이 처음에는 한국학교에 다니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재미한인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며 자신도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하은이의 다짐이 엄마로서 기뻐하기만 합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한국학교에 다녔더라면 여러가지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한국 역사 문화를 더 많은 배워서 한국인으로서의 굳은 정체성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빨리 미국에서 적응하지 않았겠냐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을 다솜한국학교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정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안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지도해주신 박은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최미영 교장 선생님 존경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하은이가 살아갈 미국 땅에서 100% 한국인으로서 100%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100%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은이가 졸업 후 보조교사로서 한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선생님께 또한 후배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안중근 의사 청소년 말하기 대회 대상 수상작] 평화의 메신저 안중근 의사



열매반 김민건

여러분은 안중근 의사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왼손 네 번째 손가락 한 마디가 잘려진 손도장, 중국 하얼빈 역, 코리아 우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라는 단어들만 떠오릅니다.

저는 이번에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안중근 의사가 중국 뤄순 감옥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쓰신 [동양평화론]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라는 이름으로 당시 우리나라였던 조선을 빼앗아 동양평화를 파괴한 이토를 저격함으로써 살아있는 평화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이 함께 평화회를 조직하고, 평화유지군을 창설하며, 공동 은행 설립과 공용 화폐 발행, 그리고 서로의 언어를 배워 좋은 관계를 다지자고 하였습니다. 이 동양평화론은 안중근 의사 순국 9년 후, 삼일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아시안 혐오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되 함께 목소리를 내주어야 할 때라고 배웠습니다. 누구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또한 ‘자신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하는 실천가’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독립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지키기 위해 큰 귀감이 되는 명언들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 중 저에게 가장 감명깊었던 명언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 즉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힌다.”입니다. 이 글은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쓴 가장 유명한 글 중 하나로, 사형 집행을 알리러 간 일본인 간수에게도 “다 읽지 못한 책이 있으니 시간을 달라”며 5분 남짓 독서를 이어갔다는 일화를 보아도 그가 얼마나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안중근 의사처럼 매일 1시간 이상 꾸준히 독서를 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위국헌신 군인본분, 즉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은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간수에게 써준 글로, 안중근 의사와 같은 훌륭한 분을 중대범인으로 대해야 하는 자신의 임무에 괴로워하던 일본인 지바에게 “당신은 군인으로써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임무하는 것일 뿐이다”라며 위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간수에게까지 위로를 전할 수 있었던 그의 성품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일막허도 청춘부재래, 즉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입니다. 서른 두살의 짧은 인생을 사셨던 안중근 의사는 하루를 일 년처럼 값지게 사셨습니다. 저는 가끔 빨리 놀고 싶어서 해야 하는 숙제를 내일로 미뤘었는데, 그랬던 저를 반성하며 그날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현장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구별 없이 마음과 힘을 합해 동양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 기회에 ‘동양 평화 만세’를 삼창하고자 하니 특별히 허락하기를 바란다”고 부탁하셨지만 끝내 거절당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그 때 외치지 못하신 만세 삼창을 지금 제가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 주세요.

“동양 평화 만세”

수상 소감

안녕하세요? 저는 제6회 안중근 의사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탄 김민건입니다. 처음에 선생님께서 안중근의사 말하기 대회에 참여해보라는 이야기 하셨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부모님의 응원을 받고 용기를 내어 대회에 참가해 보기로 결정을 하였고,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는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독립운동가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의 유명한 명언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형이나 누나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말하기 대회에 도착했을 때, 저보다 어린 참가자들이 많아서 한 번 놀랐고, 또 그 어린 참가자들이 모두 발표를 너무 잘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많이 긴장되었지만, 실수없이 발표를 마친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 참가해 본 말하기 대회여서 발표를 준비하는 내내 힘든 점도 있었지만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표를 도와주신 선생님, 열매반 친구, 형 누나들의 응원,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었던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근 의사 청소년 말하기 대회 참가상 수상작] 안중근의 짧은 삶과 꿈



은유반 유준희

코리아 우라~

여러분, ‘코리아 우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러시아어로 “대한 만세!”라는 말이에요.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쏜 다음에 한 말이지요.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 말하기 대회를 소개해 주셨을 때, 저는 안중근 의사가 누구인지 무척 궁금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역사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 보니, 안중근 의사가 우리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안중근 의사의 삶과 꿈에 관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안중근은 1879년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매우 용감했대요. 활 쏘기와 사냥을 좋아하고 말 타기도 잘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중근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조선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일본이 아시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조선을 힘들게 하던 때였어요.

안중근 의사는 조선을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던 중 1905년, 일본은 조선과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었어요. 을사조약은 조선이 다른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외교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어요. 외교권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결국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었지요.

안중근은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학교를 지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그는 해외로 가서 의병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의병 활동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던 일본 군인과 경찰을 혼내주는 활약을 하기도 했어요.

당시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에 보내, 조선을 맘대로 통치하려 했어요. 오직 일본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이용하고 나쁜 짓을 일삼았지요. 1909년 가을,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중근은 이 때가 일본의 나쁜 행동들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로 생각했어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중국의 하얼빈역에 도착하여 환영인사를 하던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아 쓰러뜨렸어요. 그의 너무나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동양의 평화를 무너트리고 일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일본의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된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고 ‘대한 만세’를 러시아어로 외쳤어요. “코리아 우라!!”라고 말이에요. 아마도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독립을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게도 안중근은 이 자리에서 붙잡혀 30세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안중근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어요. 생각만하고 실천하지 못하던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살도록 해주었어요.

저는 안중근 의사의 여러 활동과 가치 있는 죽음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한 일은 책에서 보던 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에 대해 알수록 저도 무언가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졌어요.

지금은 안중근 의사가 살았던 때처럼,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최근 중국이 한국의 김치와 한복을 자기네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다른 친구의 것을 뺏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어요.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것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선 친구들에게 한복이 우리 것이라는 것과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 설날에는 담임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설날을 Chinese New Year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가서 Lunar New year은 중국 말고도, 한국, 베트남, 그리고 다른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모두 기념하는 날이니깐, Chinese New year가 아니라 Lunar New year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선생님은 바로 잘못 말했다고 해주시고 고쳐서 말씀해주셨지요.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안중근처럼 대단한 일은 못하더라도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자세히 알려주고 싶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 더 많이,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올해는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지 112년이 되는 해예요. 안중근 의사를 계속 기억하면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처럼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먼저 도울 거예요. 저는 안중근 의사가 꿈꾸었던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어질 길 바라거든요! 감사합니다!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백범평화상 수상작] 꺼지지 않는 빛, 김구



열매반 장하진

나는 피부 색깔과 언어와 문화가 다양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꿈과 이상이 많았던 나는 문득 혼자 있을 때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상상을 하곤 한다. 과학이나 기술적으로 꿈이 현실이 되는 동네인 실리콘밸리에 사는 나는 ‘편하고 틀에 박힌 삶’보다는 ‘뭔가 새롭고 특별한 삶’을 원하는 상상의 나라를 펼친다. 그러다가 어느새 비현실적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덮으면 바람이 꺼진 풍선처럼, 속이 텅빈 인형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상상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의 불꽃을 일으키는 동기나 열정이 생기지 않거나 금방 꺼져버려 실망하는 순간들이 많았다. 작은 물줄기는 여러 갈래로 흩어져 말라 버리는 것처럼 나의 작은 꿈들도 시간이 지나며 지루함과 게으름이라는 장애물을 만나 메마른 땅이 되어 버린 듯했다. 그랜드캐년의 콜로라도 강처럼 거센 강의 물줄기는 크고 작은 바위나 산을 만나도 새로 길을 내어 힘차게 흐른다. 나도 가슴 속 작은 불꽃이 온 몸을 사르며 빛을 내고 추위를 녹이는 불처럼, 어지러운 세상을 가르며 흐르는 힘찬 물줄기처럼 멈추지 않는 열정과 노력으로 살고 싶은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책을 읽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의 잠자고 있는 글쓰기 본능을 깨워 호기심과 흥미, 재능과 연습, 기회와 용기 등 땀감을 모으는 일을 시작했다. 대~한 독립, 남~북 통일 김구 선생님 책을 읽고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한 것이다.

어렵게 태어나 원하는 공부도 할 수 없었던 김창암의 어릴 적 이야기를 읽고 있을 때 차가웠던 이불 속은 어느새 따뜻해지고 옆에 있던 전화기에 친구들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을 읽으며 문득 창암이와 나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었다. 가난 때문에 먹을 것도 부족했고, 병이 나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선생님이 없어 배울 수 없었던 창암을 보며 부모님은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셨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암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가락으로 엿을 바퀴 먹기도 하고, 아버지의 돈 꾸러미를 훔치는 말썽도 부렸지만 김구가 된 후에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효자가 되었다.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의 몸을 주무르는 장면과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피와 살을 아버지께 먹게 해 드린 장면은 그가 얼마나 효자인지 알 수 있는 예화이다. 나도 어렸을 때 웃이나 재미있는 느낌의 웃감을 보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표시나지 않도록 잘라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곤 했다. 그 때마다 부모님께 큰 꾸중을 들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어머니는 “하진이 참 창의적이고 미적 센스가 넘쳐서 그 자리에서 생각하면 행동으로 바로 해야 했었구나. 얼마나 멋진 디자이너가 되려나?”라고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추억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때 집안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망쳐 놓

은 게 미안했고, 지금도 사춘기라며 나 자신도 모르게 가끔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 드리지만 나도 부모님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사랑하며 서로 배우고 도우며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꿈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다.

창암이는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공정하지 않은 과거 시험 때문에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창암은 끊임없이 다양한 공부를 하고 좋은 스승을 찾아 배움을 계속 했다. 관상, 빗자리, 군사까지 다양하게 공부하고 동학의 접주, 불교의 스님,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 김구 선생님이 나라 잃은 우리 민족에게 큰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영향을 준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그 중에서도 고능선이라는 스승은 조선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지금도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 미국 학교에서 배우는 동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역사나 문화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나라들에 비하여 아주 작고 흥미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을 겪어 미국이 도움을 준 작은 나라, 북한의 핵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나라 등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몇 년 전부터 K-pop, K-movie, 또는 K-drama로 인해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나는 한국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좋지만, 지금의 한국은 무한 경쟁과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문화가 가득한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그리고 ‘부산행’ 같은 좀비 드라마로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자극적인 미디어 중심인 한국 문화보다 좀더 다양하고 전통적인 한국 문화가 더 크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나는 9년 동안 한국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한글로 디자인한 옷, 오방색으로 꾸며진 비빔밥과 색동저고리, 온돌의 따뜻함과 대청마루의 시원함을 자랑하는 한옥에서의 캠프, 그리고 사물놀이 반에서 배운 장구 등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 유산을 외국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아니고 문화가 높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라셨다고 하셨는데 나 역시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 아름다운 문화를 누리는 삶이 바로 새롭고 특별한 삶을 살며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나 경쟁보다는 영어에서는 없는 단어인 이웃사촌, 품앗이라는 한국의 문화는 정말 따뜻하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외로움과 우울함이라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배우고 누린 한국 역사와 문화의 힘이 내는 밝은 빛이 다른 사람을 비춰주고 따뜻함을 전하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

따뜻한 기운은 열정으로 타오르지 않으면 식어지게 된다. 김구 선생님은 열정적인 것을 넘어 타오를수록 밝은 빛이 되는 낮의 태양처럼 살다가 밤을 은은하게 비추는 달이나 별처럼 대한민국에 바쳐졌다. 일본에 대한 복수로 일본군 중위 스치다를 죽이는 열정은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자유와 독립을 꿈꾸고 이루는 혹독한 훈련의 시작이기도 했다. 자유를 빼앗긴 상징이 감옥이지만 일본에 빼앗긴 우리 나라는 감옥보다도 더 참을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독립을 향한 꿈은 김구 선생님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상하이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사람의 꿈은 잠시 있을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는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이다. 죽음을 각오한 젊은 이봉창과 사진을 찍으며 보내는 마음, 큰 일을 앞두고 자신이 필요한 시간은 단 한 시간이라며 시계를 바꾸자던 윤봉길의 시계를 받는 김구 선생님의 심정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것은 열정이 아닌 희생이기 때문이다. 희생은 죽음이지만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다.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가치 있는 죽음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의롭게 살았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김구 선생님의 독립의 꿈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백범통일상 수상작] 오늘 저는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롭습니다

의 모습이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남은 꿈인 통일은 이제 우리들의 꿈이 되었다. 통일이라는 말은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친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unity라고 하며 united가 국가의 이름에 들어가는 나라들 중 하나가 미국이다. 통일된 나라 미국이 얻은 자유는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치러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공짜처럼 주어진 것이 사실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통일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가 되기 점점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통일은 땅과 나라 이름의 통일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고 생각이 열리는 것이 통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2015년 여름, 탈북 학생과 함께 하는 통일 캠프로 미국에 온 학생들 중 한 명이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던 기억이 있다. 그 때 나는 너무 어려서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고, 어려서부터 북한의 전통 무용수를 했던 그 언니의 한복 입은 모습이 기억난다. 말이 통하고 문화의 뿌리가 같은 남한과 북한은 각기 다른 길을 간 것 같지만 '평화'라는 커다란 꿈이 모이면 하나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힘찬 물결을 만나면 작은 물살들이 합쳐지는 것처럼 김구 선생님께서 남기신 평화의 꿈 덩어리가 점점 커져 세찬 물줄기가 되는 날이 곧 오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이제까지 많은 꿈과 목표를 말하고 포기하고 바꾸는 일을 계속 하며 어른들이 묻는 꿈은 당연히 직업을 말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에게 두 가지 생각의 큰 변화가 생겼다. 첫째로 흔들리지 않는 꿈은 직업이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과 영향력이라는 것이고, 둘째로 큰 꿈은 크거나 부피가 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의 작은 변화를 위해 힘쓰고, 아주 작은 습관을 바르게 고치는 일을 통해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같은 꿈을 함께 꿀 수 있도록 기도한다.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신 김구 선생님의 빛을 받아 나의 꿈은 타오르기 시작했다. 오늘도 김구 선생님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된 내 마음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도록 글을 쓰고, 스케이트를 타고, 숙제를 한다.



화평반 박채린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를 위한 김구 선생님 책을 받았을 때, 표지에 있는 태극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앞에는 검은색 동그란 안경을 쓰고 하얀색 한복을 입으신 김구 선생님이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딱 들어온 단어는 ‘백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얀 호랑이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김구 선생님의 이름 앞에 있는 ‘백범’은 하얀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또 다른 이름인 ‘백범’은 신분이 낮은 백정과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자는 뜻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백범’의 뜻을 알고 나니 자신의 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나라의 큰 별, 백범 김구> 책을 통해, 김구 선생님의 삶을 보고 저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김구는 주막집에서 수상한 왜놈 군인을 죽이고 난 후에,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왜놈을 죽였다.”라고 벽에 붙이고 결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여러 번 재판받을 때도 겁내지 않고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대답하면서 오히려 옆에 있던 일본 순사를 혼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난 번에 제가 했던 실수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행을 할 때마다, 여행한 곳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곳을 잘 알려주는 자석을 사서 냉장고에 붙입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많은 자석들은 저희 가족의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어느 날, 제가 냉장고에서 자석 하나를 떼다가 바닥에 떨어뜨렸고 자석의 가장자리 부분이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자석을 집어서 다시 냉장고에 붙여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냉장고의 자석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두려움으로 잘못된 것을 부모님께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은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고 잘못된 일을 봤을 때는 지나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하는 분이셨습니다. 대한 독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국 상하이에 한국 독립군을 만들어 훈련시키고,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힘을 기르셨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갑자기 미국에 항복을 해서 우리 독립군의 힘으로 독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안타까움이 남은 독립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큰 목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노력하셨습니다. 목표를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김구 선생님의 모습에서 저는 3년 전 농구를 시작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농구를 매우 좋아했고,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농구를 잘하는 언니에게 레슨을 받고 공원에 있는 농구장에서 혼자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친구들과 농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를 보시던 코치 선생님이 수비를 잘한다고 칭찬 하시면서 팀에 들어오라고 추천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칭찬까지 들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연습 장소도 가보고 팀의 경기 일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제 등록만 하면 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팀의 연습과 모든 경기는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팀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운동을 하지 못하고 감옥처럼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고 화도 났습니다. 한국 독립군을 훈련시키고 일본과 싸울 계획을 세웠는데 시도해보기도 전에 갑자기 독립이 되었을 때 김구 선생님의 마음이 저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농구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버리고 다음 목표를 세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나라를 매우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헌병 파견소에 잡혀가서 고문과 조사를 받을 때, 다른 독립 운동가의 이름을 말하라고 강요 받았지만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립 운동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서 상하이 임시 정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독립하지 못한 일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통일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개인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저에게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바르게 알고 배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야 역사가 계속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김치와 한복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한글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바르게 알고 배워서 제대로 전달하면 다른 나라에서 한국 문화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3살 때 미국에 온 저는 7년동안 한글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쉬지 못하고 한글학교에 가야 하는 것이 싫을 때도 있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저에게 공부가 되는 동시에 대한민국에게도 중요한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교육에 힘쓰셨던 김구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책을 통해서 저에게 용기, 노력,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라의 큰 별, 백범 김구> 책을 읽고 저도 김구 선생님처럼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저의 목표인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인 한국을 더 사랑하고 미국 학교 안에 다른 외국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러운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었던 통일은 되지 않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나뉘어 있지만 평생을 바쳐서 독립에 힘써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유를 누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 덕분에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롭습니다.



[북가주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입상 수상작] 아름다운 한글을 널리 알리는 캘리그래피 작가



열매반 윤지운

여러분은 길었던 팬데믹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 스케이팅도 못 타고 오랜 시간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심심했어요. 그런 저에게 엄마께서는 캘리그래피를 추천해 주셨어요. 캘리그래피는 글씨를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글씨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저의 꿈은 바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캘리그래피 작가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평소에 제 손글씨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캘리그래피를 쓸 때에는 글자를 두껍게 쓰기도 하고 얇게 쓰기도 하니 제 글씨가 조금 더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손글씨가 점점 예쁘게 바뀌는 것이 신기해서 캘리그래피에 점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우선 저는 학교에서 배운 영어 필기체부터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 캘리그래피로 꾸민 나만의 카드를 만들었어요. 모두 특별한 카드에 기뻐하며 제 글씨에 대해서 칭찬해 줬어요.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제게 약점이었던 손글씨는 어느새 저의 강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캘리그래피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신감도 생겼지만 힘든 점도 있었어요. 글씨를 쓰다가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써야 한다는 점이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려운 만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더욱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내를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캘리그래피는 저의 노력이 담긴 작품이어서 더욱 기쁨과 보람이 느껴졌어요.

저는 작년 한글날을 맞아 처음으로 한글 캘리그래피를 해 보았어요. 제가 영어와 한글을 둘 다 써 보니 한글은 가로획이 많아서 더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복에 대해 배웠는데 한복 포스터를 영어와 한글 캘리그래피로 만들었어요. 한복과 캘리그래피는 둘 다 선이 멋있고 색이 아름답다는 점에서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을 외국 친구들에게 캘리그래피로 소개하고 싶어졌어요. “우와! 이거 디자인 너무 멋지고 우아하다.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응, 이거는 ‘우정’이라는 글자인데 ‘Friendship’이라는 한국어야” 이렇게 말이에요. 친구와의 행복한 감정을 나타내는 우정, 놀라움을 표현하는 대~박 같은 한국어를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어요. 캘리그래피 작가가 되어 한글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정신을 알리고 세계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저의 작지만 큰 꿈입니다. 제 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스타일 1탄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한글

2021~2022학년도 한국역사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한스타일>로 정하고 한글 창제 575돌을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한글>이라는 제목으로 공부(강의: 최미영 교장) 하였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모든 학생이 모여서 한글날을 경축하고 한글을 만든 신 세종대왕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와 때를 알아보고 소리가 나는 발음기관과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음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한글이 처음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훈민정음으로 불리다가 주시경 선생님의 의해 큰 글이라는 뜻의 한글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듬에서는 한글날을 Hangeul Day가 아니라 Hangeulnal로 적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에서는 한글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일제강점기에도 한글을 지키기 위해 애쓰셨던 분들의 노력으로 오늘날에 한글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도 미국에서 한글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음을 함께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한스타일 3탄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한복

본교에서는 지난 2월 26일 한복을 주제로 한 역사 문화 강의(강사: 박은경 교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다듬한국학교의 한국 역사 문화 강의를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한글, 한식에 이어 이번에는 한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한복 홍보대사"라는 주제로 한복의 역사부터 학생들의 한복 체험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한복에 대해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설날, 추석 등의 중요한 행사에 항상 한복을 입어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한복을 자주 접하며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복 강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최근 중국에서 한복을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복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한복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생들이 한복의 가치를 바로 이해하고 한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규학교 세계사 교과서에도 한복은 한국의 고유한 의복이라고 소개되어 있으므로 우리 학생들은 정규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넘어 한복에 대한 역사와 고유한 특성을 익혀 우리 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한복 홍보대사로서 이를 다른 민족 학생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복 역사 문화 강의에서 학생들은 한복의 역사, 한복의 재료, 한복의 특징, 한복의 장신구 등을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돋보였는데 열매반 장하진 학생은 남자와 여자 한복 입는 방법을 그림과 함께 순서에 따라 설명하였고, 열매반 김민진 학생은 한복의 날을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한복뿐만 아니라 한식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동북공정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열매반 한동진 보조교사는 온라인으로 다듬한국학교 학생들의 한복 패션쇼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한복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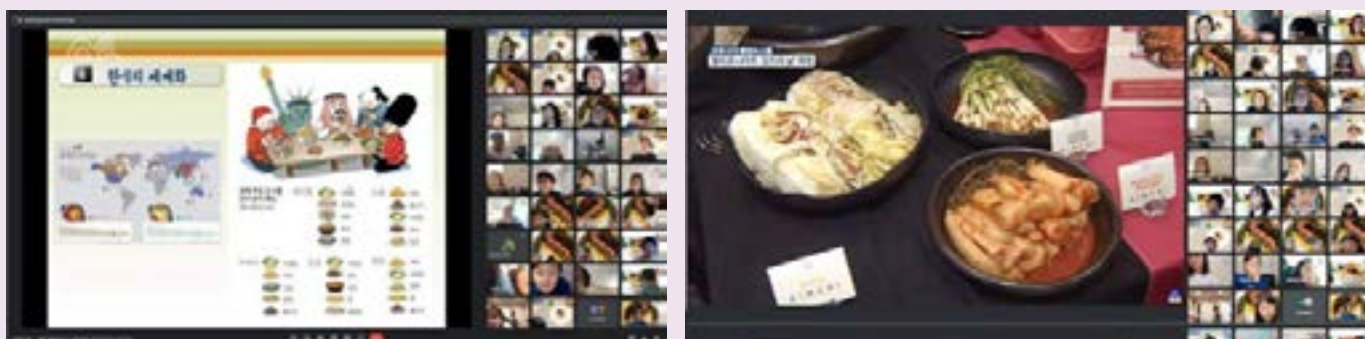


한스타일 2탄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한식

다듬한국학교에서는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이하여 한스타일 한식에 관한 수업(강의: 박은경 교무) 했습니다. 김치 재료 하나하나(11월) 모여서 22가지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한국에서는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제정되었고, 지난 8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이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건강 전문가 '헬스'가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의 하나로 발표한 바도 있듯이 학생들은 김치의 재료와 영양 효능에 대해 공부하며 김치를 더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지내며 널리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겨울 동안 먹을 김장을 하고 나누는 문화가 201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도 공부하였습니다. 김장을 함께 담그고 서로 나누는 풍년이 문화가 매우 귀하기 때문에 유네스코 유산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젓가락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쇠젓가락으로 콩 옮기기를 30초 동안에 해보며 누가 더 많이 콩을 옮길 수 있는지 실험도 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팬데믹 기간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식사 예절에서 식사 속도를 맞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식사 예절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을 소개했는데, 비빔밥이 모든 도시에서 인기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학생들은 김치의 날을 다시 한번 함께 축하하며 맛과, 멋 그리고 영양이 듬뿍 들어 있는 한식을 널리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한스타일 4탄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한옥과 한지

한글, 한복, 한식에 이어 한옥과 한지를 주제로 수업(강의: 최미영 교장)이 있었습니다. Word Cloud에서 아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으로 강의가 시작되었고 기와집, 초가집, 궁궐 등의 한옥을 소개하고 안방, 사랑방, 대청마루, 측간 등의 단어도 배웠습니다. 대청마루, 사랑방, 처마, 온돌을 주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연결된 역할극을 보조교사들이 재미나게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선배들의 연기에 많이 웃고 또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연극을 위해서 학생 중에서 즉석 캐스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학생들에게 초석 퀴즈와 단답형 퀴즈를 내서 학생들도 열심히 경청하도록 했습니다. 한글을 잘 아는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의 강의 요점을 개인 칠판에 적어두고 퀴즈를 맞추려고 했고 어린 학생들은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채택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교육출판사에서 발행한 정규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소개된 한옥과 온돌에 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장선생님이 목에 두르고 있었던 스카프가 한옥에서 문과 창문에 사용된 한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만져보며 종이인가 천인가 하고 가우똥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로 정리하며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학생들은 반별 학습지를 통하여 심화학습을 하게 됩니다. 닥나무를 주재료로 삼아서 만들어지고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16건의 유산 중에 13건이 관련이 있는 한지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지는 청원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여 한지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바랍니다.



다솜의 자랑

보조교사들의 이야기



권민호

하나. 제 이름은 권민호입니다. 다솜에서 2년 동안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둘. 지난 1년 동안 담임한 반은 충성반이고 저희 반의 특별한 점은 미래에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셋. 올해동안 어려웠던 일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중에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3월부터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친해질 시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넷. 올해 특별히 기억나는 학교 행사는 바로 개교기념일 행사입니다. 그 이유는 2년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다가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2년 만의 첫 오프라인 행사였고 모든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보조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학생들이 장난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때는 보조교사로서 도울 수 있는게 상당히 제한적 이어서 아쉬웠습니다.

여섯. 내년에도 어린 반을 맡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큰 학생들은 저를 선생님보다는 편한 형, 오빠로 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학생들을 더 편하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일곱. 다시 한국학교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조희 시간이나 역사 강의 때 더 열심히 집중하면서 듣고 싶습니다.

여덟. 이번 학기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좋은 한국학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노력하시고 애쓰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모든 보조교사들도 학업 때문에 많이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토요일마다 수업에 참석해 아이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동안 모두 수고하셨고 내년에 봐요!!



박비비

하나. 2년 동안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둘. 제가 담임한 반은 기쁨반입니다. 기쁨반은 여학생 밖에 없고 밝은 에너지가 아주 많은 반 입니다.

셋.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인터넷 문제였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느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넷. 기억나는 학교 행사는 개교기념일 행사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전통놀이들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기억의 남는 것 같아요.

다섯. 게임이나 만들기 활동이있으면 그 시간동안은 보조교사가 리드를 하는 것이 큰 일중 하나인것 같아요.

여섯. 내년에는 어린 반을 맡고 싶어요. 어린 학생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요.

일곱. 다시 한국학교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발표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여덟. 선생님들과 보조교사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 성명 / 다솜에서 얼마 동안 보조교사를 했나요?
 둘. 지난 학년 동안 담임한 반은 어느 반이고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셋. 2021-2022학년도는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오가는 1년을 보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기억나는 일, 어려웠던 일 혹은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넷. 올해 특별히 기억나는 학교 행사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보조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어 주세요.
 여섯. 내년에는 어떤 반 (어린 반, 큰 학생 반 등등) 을 맡고 싶으신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곱. 다시 한국학교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덟. 지난 1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으로 수고하신 선생님과 보조교사께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남현

하나. 1년동안 보조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둘. 제가 담임한 반은 기쁨반이고 제일 어린반이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셋. 무엇보다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반 학생들의 배우려는 자세가 제일 보람찼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점까지 오는것도 힘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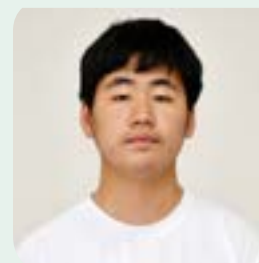
넷. 제일 기억나는 학교 행사는 삼일절 행사이며 그 이유는 저희 반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재미있게 뛰어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온라인 수업에서는 할 수 있는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선생님을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게 가장 큰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서는 선생님이 요청하시는 수업관리, 사진촬영등을 도와드립니다.

여섯. 내년에는 딱히 원하는 반은 없지만 아이들과 소통을 잘 할수 있는 반을 맡고 싶습니다.

일곱. 제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숙제를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여덟.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학교 보조교사의 일이 힘들때가 있어도 더욱더 성실히 임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준건

하나. 1년 동안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둘. 제가 이번에 담임한 반은 운유반이었고, 특별한 점이라면 제가 첫번째로 보조교사로서 담임을 맡았던 반이라는 게 있겠네요.

셋. 기억나는 일로는 여러 교내 행사들이 있었죠. 전통놀이에서 투호 코너를 맡았던 경험이라던가, 교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데 생겼던 온갖 웃픈 상황들까지, 모두 기억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어려웠던 부분은 역시 9시 출석이에요.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서 아무리 일찍 자도 늦게 일어나게 되어서 그 부분이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섯. 온라인 수업물을 준비하는 일이겠죠. 바쁜 선생님들을 위해 카훗이나 퀴즈 등 여러 온라인 미니게임들을 준비하거나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일 등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가장 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유반 학생들을 위해 그림 퀴즈를 만들거나 카훗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 수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섯. 솔직히 말해서 조금 큰 학생 반을 전담하고 싶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수업을 하면 영어로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또 몇몇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이 수업 진행에 지장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또한 TA로서 감내해야 되는 일임을 알지만, 그래도 조금은 성숙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픈 마음은 있네요.

일곱. 저는 한국학교 학생으로서 꽤 괜찮은 한 학기를 보냈다고 생각하는지라... 딱히 미련이 남지는 않네요. 숙제든 발표든 왠지 모를 오기가 생겨서 최선을 다했는지라...

여덟. 지난 1년 동안 익숙치 않은 온라인 웹페이지를 사용하여 수업을 가르치신 선생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카훗이나 구글 클래스룸 같은 온라인 리소스들이 매우 생소하셨을 텐데 저희 학생들과 TA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셨을 선생님들의 노고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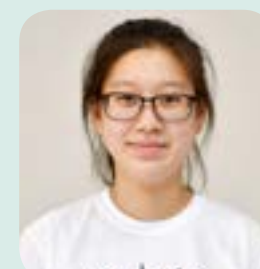
전 이 현

- 하나. 2021-2022년 학기가 보조교사로서 첫 해였습니다.
- 둘. 저희 화평반은 4-6학년 학생들 위주였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고 아이들이 점점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것이 특별했던 점입니다.
- 셋. 온라인 수업에서는 아이들과 직접적인 소통이나 행동을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도 온라인 만에 편안함이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서 아이들을 진짜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한 학생이 특정 문법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답답해 했을 때 일대일로 차근차근 설명해 줘 그 학생이 이해한 일입니다.
- 넷. 4월 2일 한옥 조희 수업입니다. 다른 보조교사 분들 그리고 학생이랑 소소하지만 재미있게 준비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 다섯. 온라인 수업에서 보조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테크니컬 문제에 해답을 찾거나 아이들이 다같이 배울수 있는 퀴즈(Kahoot)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섯. 일상적인 용어로 소통이 가능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반을 맡고 싶습니다. 그 나이 때의 학생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일곱. 다시 한국학교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한국 역사를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습니다.
- 여덟. 모든 선생님들과 동료 보조교사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때 모든 학생들의 집중력,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변경되서 생기는 아이들의 피로, 모든면에서 어려운 학기였지만 여기까지 모든 다솜학생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 지 우

- 하나. 1년 동안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 둘. '충성반'은 초등 3-4학년 학생들로 에너지가 풍부하고 착하며 서로 돕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홍지연 담임 선생님께서는 친근하게 대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권민호 보조교사 선생님은 학생들과 잘 놀아주고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 도왔습니다.
- 셋. 온라인은 수업 분위기가 조용했고 학생들이 지루해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프라인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수업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온라인에서 기억나는 일은 학생 한 명이 자기가 읽은 책을 보여주며 책 내용을 재미있게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일은 제가 물어본 질문에 학생이 대답을 안 할 때 반복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람 있었던 일은 제가 펜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 중 한 명이 알아채고는 웃으며 자기 펜을 건네주었을 때였습니다.
- 넷. 3.1절 학교 행사였는데 학생들과 같이 태극기를 들고 건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학생들과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희망을 갖고 독립을 위해 싸우는 과정이 생각나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 다섯. Breakout group으로 작게 나눠져서 개별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매 수업마다 20분 간 학생 2-3명씩 조를 이루어 읽기를 하였습니다. 각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여섯. 어린 반을 맡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귀엽고 여러가지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일곱. 한국 책을 더 많이 읽고 글쓰기를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 여덟.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수업을 이끄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보조교사 선생님이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최 하 은

- 하나. 2년 동안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 둘. 온유반을 담임했어요. 제가 처음 보조교사를 맡았던 반에 있었던 학생들이 이번 온유반에 있어서 너무 반갑고 특별했어요.
- 셋.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직접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어려웠어요. 특히 만들기를 할 때 옆에서 도와줄수 없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좋았어요.
- 넷. 개교기념일 행사때 전통놀이를 아이들과 같이 한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널뛰기를 두 보조교사와 함께 맡았는데 엉덩이가 조금 아팠지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 다섯. 온라인 수업에서 보조교사가 수업에 같이 집중하고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온라인 수업에서 보조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학생들에게 좋은 예가 되는 게 큰 것 같아요.
- 여섯. 내년에는 제가 대학교에 가서 없을 거지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어린 반을 계속 맡고 싶어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이야기 하는 거나 활동하는 것들이 재미있어요.
- 일곱. 저는 조희 시간에 더 열심히 듣고 집중하고 싶어요.
- 여덟. 이번 학기 동안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바뀌어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다 너무 잘된 것 같고, 수고 많으셨어요!



한 동 진

- 하나. 2년 동안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 둘. 열매반 - 6학년에서 9학년의 아이들이 같이 있는 반입니다.
- 셋.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기억나는 일은 다양한 학교 행사들이었습니다. 거대한 태극기를 들고 걸었던 행사도 있었고, 다양한 한국 문화 게임을 했던 행사도 기억납니다. 힘들었던 것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가끔씩 몇 명의 아이들이 말을 듣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 넷. 올해 특별히 기억하는 학교 행사는 한국 문화 행사였습니다. 그때 저는 딱지를 만들고, 반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날리기와 뒤집기 등의 딱지놀이들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기억나는 이유는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딱지놀이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딱지 안에 문화 딱지도 넣어서 노는 동안 문화를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 다섯. 제 생각으로는, 온라인 수업에서 보조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와이파이나 컴퓨터 쪽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하고, 필요할 때 인터넷 수업 자료(카훗트, 구글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수업 참가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얘기하면 정신없으니까 선생님이랑 보조선생님이랑 동시에 수업 리드를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여섯. 저는 큰 학생 반을 맡고 싶습니다. 어린 반들도 에너지가 많아서 재밌기도 하지만, 큰 학생들이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 일곱. 다시 돌아간다면 문화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이었을 때는 한국 문화에 큰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지만 지금은 문화의 중요성을 더 깨달은 것 같습니다.
- 여덟. 선생님과 보조교사들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수업하면 좋을 것 같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사 훈련 및 보조교사 훈련 2021년 8월 28일



다솜한국학교에서는 2021~2022학년도 개강을 위해 3차에 걸친 교내 교사 연수회를 마치고 2021년 8월 28일에는 교사 및 보조 교사 합동 연수회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현장 모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남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9명의 교사와 8명의 보조 교사가 함께 모여 하이브리드 수업 준비를 위해 온라인 게임인 카훗 게임과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게임을 통해 하이브리드 수업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고, 서로를 알게 다솜한국학교의 역사 및 올해 수업 내용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웃으며 보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개강식 2021년 9월 11일



다솜한국학교2021~2022학년도 개강식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분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홍지연, 조은미 선생님과 전이현, 이남현, 이준건, 정지우 보조교사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각 반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단평가를 보았고 반의 규칙도 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와 교재 그리고 독도재단과 고인쇄 박물관에서 제공한 선물도 받았습니다.

추석 행사 2021년 9월 11일



2021~2022학년도 개강식과 함께 추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올해는 한복을 입지는 못했지만 모두 함께 추석에 관해 공부했고 추석 퀴즈대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기다려왔던 송편 만들기 체험 행사를 반 별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송편을 소중히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라인 수업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구글 미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가을 학기와 봄 학기 개강 후 2022년 2월 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아침조회 속담공부



대면수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교장선생님과 함께 하는 아침 조회 시간을 매주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는 주로 속담 공부를 했고 역사 문화 수업 및 계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속담은 10가지였고 4자성어도 8개를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청출어람'으로 정하고 청출어람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독도의 날 계기 수업 2021년 10월 23일



다솜한국학교에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1주년, 2021년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땅 독도 계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은 독도 티셔츠를 입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렸습니다. 독도는 리양쿠르 암초도 다케시마도 아닌,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신라 땅으로 편입시키면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땅이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영토임을 학생들과 교사 모두 확인하며, 독도 지킴이의 역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을 학기 중 대면 수업 2021년 12월 18일



겨울방학을 하면서 학생들과 대면수업을 하였습니다. 반 별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간단한 테스트를 했고 화평반에서는 그동안 프로젝트로 했던 소설쓰기를 완료하고 책으로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서 후원한 한복 열쇠고리, 한지 보석함, 고무 도장 만들기 및 청주시의 후원 교구인 흥덕사 3층 석탑 블럭 쌓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오랜만에 얼굴로 만난 친구들과 반가워하며 많이 이야기 하고 많이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가 학생들로 가득 했고 성탄절 포도 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조교사 사은회 2021년 12월 18일



2021년 보조교사 사은회가 지난 12월 18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산호세한인장로교회 친교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면 수업을 마치고 보조교사와 교사들이 이사회와 함께 식사를 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정광용 부총영사님, 강완희 교육원장님, 장동구 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님이 참석하여 다솜 보조교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2020~2021학년도 보조교사들에게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차세대 봉사상도 수여하였습니다. 봉사상을 받은 보조교사는 권민호, 박희희, 한동진 보조교사가 모두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반별로 선생님들의 칭찬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온라인 수업 중에도 수업 보조, IT 문제 해결하기, 분반 공부, 게임 준비하기, 작품 만들고 지도하기 등등의 여러 모습으로 보조교사들의 도움이 컸다며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보조교사들도 지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즐거웠던 점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Korean Heroes in Korean American Ethnic Studies

한인 이민사 인종학에 나오는 세계속의 한인 리더] 발간 2021년 12월 18일



2021년 1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국 역사문화 교재 "Korean Heroes in Korean American Ethnic Studies [한인 이민사 인종학에 나오는 세계 속의 한인 리더]" (212쪽, ISBN 978-0-9997153-5-2)를 발간하고 출판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출판기념식은 박석현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전남민 다솜한국학교 이사장의 격려사와 정광용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 강완희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장, 장동구 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황희연 북가주한국학교협의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최미영 교장의 인사말과 경과보고가 있었고 공동저자 (원은경 교감, 박은경 교무)의 제언과 반에서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들의 회고가 이어졌습니다.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단체 사진을 함께 찍으며 6번째 책의 출간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

설날행사 2022년 2월 5일



2022년 임인년 설을 맞이하여 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비록 만나서 함께하는 설 행사는 아니었지만 함께 한복을 차려입고 권미정 선생님과 조은미 선생님이 준비하신 강의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한민족의 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민속놀이는 투호놀이와 윷놀이입니다. 투호놀이는 대면으로 만나면 하기로 하고 윷놀이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팀을 나누어서 온라인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설을 보냈습니다.

2022 삼일절 계기 수업 2022년 3월 5일



삼일절 10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5일 학교에서 삼일절 계기 수업을 마치고 학교 주위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태극기 행진을 했습니다. 만 2년 만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대면수업으로 돌아와 만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삼일절 관련 단어를 만들어 보고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태극기 행진은 가로 4.6미터, 세로 3 미터의 대형 태극기를 맞잡고, 다른 쪽 손에는 손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와 애국가" 음악에 맞추어 행진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함께 행진하며 감격스러워 했고 마지막에 만세 삼창을 함께 불렀습니다.

대면수업 시작 2022년 3월 5일



2020년 3월 첫 주간부터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실 수업을 못한 지 2년 만에 전면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즐겁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대견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하는 수업이지만 학생들도 교사들도 만남의 기쁨이 컸습니다

개교 18주년 기념식 2022년 3월 12일



2022년 3월 12일에는 개교 18주년을 맞이하여 개교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2년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대면으로 만나 진행된 개교기념식이어서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은 개교기념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적어서 다솜 나무에 붙이며 축하했습니다. 간단한 기념식과 보조교사들과 함께하는 전통놀이로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보조교사들은 각각 맡은 전통놀이를 진행했는데 모두 다솜에서 학교를 다니며 갈고 닦은 솜씨로 전통놀이를 잘 진행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조교사의 진행 솜씨를 보면 칭찬이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정도로 리더십과 열정을 발휘했습니다.

[NAKS Korean Test 시험] 2022년 3월 19일



3월 19일 NKT 시험이 있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 제공하며 한국어 실력을 알아보는 모의 시험입니다. 화평반과 열매반 학생들이 합반하여 시험을 치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Speaking과 Writing 문제가 시험에 나와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조금 긴장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미리 파일럿 테스트로 문제를 풀어 보았고 오리엔테이션과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어서 정말 대견하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보조교사들이 모두 힘을 모아 학생들이 기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답을 발송하도록 도왔습니다.

북가주 나의 꿈하기 대회 2022년 4월 9일



2022년 4월 9일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3 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가 플레젠한국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본 교 열매반 윤지윤 학생이 '아름다운 한글을 널리 알리는 캘리그래피 작가'라는 제목으로 참여하여 입상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멋있게 자신의 꿈을 발표해 준 윤지윤 학생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대회를 마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지윤 학생의 소감이 참으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지윤이를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북가주 스펠링비 대회 2022년 4월 23일



2022년 4월 23일에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가 주최하는 '코리안 스펠링 비 대회'가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교에서 열매반 윤지유 학생과 남소은 학생이 참가 자격(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국에서 초등 교육을 1년 이상 받지 않은 학생으로 4~6학년 학생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서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회 요강에 나온 시험 범위는 재외동포 교재 4-1부터 6-2까지였습니다. 두 학생은 최선을 다했고 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한국어를 더 잘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6회 청소년 말하기 대회 2022년 4월 30일



미주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제6회 청소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지난 4월 30일 토요일 서니베일에서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대회였습니다. 본교에서는 열매반 김민건(6학년) 학생과 은유반 유준희(3학년)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유준희 학생은 모든 원고를 다 외우고 틀리지 않게 차분하게 잘 발표하였고 김민건 학생도 원고를 외우고 강약을 넣어가며 힘있게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하였습니다. 유준희 학생은 참가상을 수상하였고 김민건 학생은 대상인 평화상을 수상하여 본교 안중근 의사 송모회 김향식 이사장님이 보내 온 상장과 상금 (\$300)을 받았습니다. 두 학생이 대회에 참여하여 잘 발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 2022년 5월 14일



5월 14일 보조교사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대통령 봉사상 (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와 이사장상 및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9학년을 마치고 다솜한국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보조교사들은 10학년년부터 하게 되는데 최하은, 권민호, 한동진, 전이현, 박희희, 이남현, 정지우, 이준건 등 8명입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된 대면 수업에도 보조교사들이 시종일관 최선을 다해 왔음에 감사합니다.

2021-2022년도 종업식 2022년 5월 21일



다솜한국학교에서는 2021~2022학년도를 마치며 대면 종강식과 졸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사물놀이 팀의 식전 공연을 마치고, 홍지연 선생님의 사회로 시작된 종업식은 국민의례와 박석현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10분 가량의 동영상도 감상했고 최미영 교장 선생님의 학사보고와 학생들이 잘 배워서 많이 성장했다는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별로 발표가 진행되었고 개근상, 모범상, 우등상 등이 수여되었습니다. 9월10일 개강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즐거운 여름 방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2022년도 졸업식 2022년 5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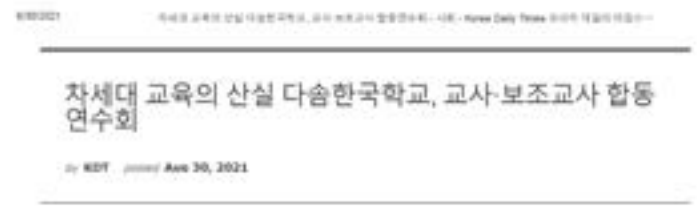
종업식에 이어 박은경 교무 선생님의 사회로 이어진 졸업식에서는 장우주, 남하은 학생이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생을 소개하기 위해 다솜에서 성장하는 모습의 사진들과 재학생들의 축하 인사를 담은 동영상도 함께 감상하며 졸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최미영 교장 선생님은 두 학생의 졸업을 축하하며 졸업생은 다솜의 열매이며 동역자라고 하며 앞으로 선배들과 함께 보조교사로 동역하면서 더욱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졸업에 대한 감회를 발표가 있었는데 다솜을 통해 성장하고 선생님들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고, 한국학교 활동에 더 열심히 최선을 못한 것이 아쉽지만 보조교사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한 졸업생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축하 인사를 마치고 졸업생과 함께 하는 보조교사의 축하 공연도 있었습니다. 박석현 목사님의 축도로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인 졸업생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2학년도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시상식 2022년 7월 16일



제 11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에서 열매반 장하진 학생이 <백범 평화상>을, 화평반 박채린 학생이 <백범 통일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학생은 비대면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상패와 메달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심사평에서 장하진 학생은 '꺼지지 않는 빛, 김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김구 선생의 삶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잘 정리하여 제시해주었다는 칭찬을 받았고 박채린 학생은 '오늘 저는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롭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구 선생님과 같은 독립운동가 덕분에 누리는 자유에 감사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글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1. 교사·보조교사 합동 연수회: 2021년 8월 29일 KD TIMES



캘리포니아 북부 사니세베일시에 위치한 다ս한국학교(교장 최미영)에서는 2021~2022학년도 개강을 위해 3차에 걸친 교사 연수회를 마치고 28일에는 교사 및 보조교사 합동 연수회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현장 모임으로 진행하는 등 차세대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전날인 이사장을 비롯한 9명의 교사와 8명의 보조 교사 등은 하이브리드 수업 준비를 위해 온라인 게임인 '카툰'과 '나는 누구입니다'를 통해 하이브리드 수업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했다. 또한 서로를 소개하고 다ս한국학교의 역사 및 올해 수업 내용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 개강식: 2021년 9월 2일 현대주간

Hyundai Weekly News USA clipping from September 2, 2021, titled '다ս한국학교, 교사연수회 통해 준비 완료'. It includes a group photo of staff and text about the school's preparation for the 2021-2022 school year.

Article titled '다ս한국학교, 교사연수회 통해 준비 완료'. It details the school's preparation for the new school year, mentioning a hybrid learning model and a focus on student safety and learning.

3. 교사·보조교사 합동 연수회: 2021년 9월 3일 한국일보



다ս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 28일 '교사 및 보조교사 합동 연수회'를 현장 모임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사 및 보조교사들이 게임을 통해 하이브리드 수업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고 과제를 서로 나눴다.

연과 보조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하고 싶은 분야를 열망하고 1년 동안 다ս 보조 교사로써 열심히 일하겠다는 신념을 함께 하였다.

4. 개강식: 2021년 9월 13일 현대주간

Hyundai Weekly News USA clipping from September 13, 2021, titled '“잘 배워서 다른 사람 돕는 일꾼이 되기 바란다”'. It reports on the school's opening ceremony and the principal's message to students.

5. 한글날: 2021년 10월 12일 현대주간

Hyundai Weekly News USA clipping from October 14, 2021, titled '한글날 기념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한글”'. It features a large grid of photos from a virtual Korean Day event and text about the school's celebration of the Korean language.

6. 한글날: 2021년 10월 14일 한국일보



다송한국학교교장 최미영은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와 뜻을 알아보고 소리가 나는 발음기관과 정치언의 모양을 보면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음을 공부했다. 또한 한글이 처음에는 '백성들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훈민정음으로 불리다가 주시경 선생님의 의해 '한 글'이라는 뜻의 한글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도 배웠다. 오늘날 한글은 전세계 사용 순위 14위로,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하는 인구를 포함해 7,940만명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8. 독도의 날 계기 수업: 2021년 10월 28일 현대 주간



종이슬레기 종이이끼 등의 활동을 했고 독도의 달인 10월 동안에 각 반에서는 독도에 관한 실험 학습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10년 이상 지속하여 독도의 날에 독도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출 다송한국학교>

7. 독도의 날 계기 수업: 2021년 10월 27일 한국일보



다송한국학교교장 최미영은 지난 23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해 독도 계기수업(절기나 국경일 또는 중요한 정치사회적 사건을 소재로 한 교육활동)을 진행했다. 독도는 해양 주도 압축도 다케시마도 아닌 512년 역사부 장관이 우선국을 신라 왕으로 명명시킨 대한 영국 영입을 앞두고 각 반에서 독도 미니북 만들기, 독도 퀴즈를 풀고 독도 병에 도인장 만들기, 독도 노래 다시 배우기, 독도 모형 만들기 등이 골매기 종이이끼 등의 활동을 했다.

9. 한국역사문화 수업 [한스타일-한식]: 2021년 11월 25일 현대주간



한식은 맛과 영양도 좋으나 맛도 있는 음식임을 깨달았다. 오랑미오 노로, 볶음, 파란, 라면, 김장 등의 색으로 다양한 신선로, 구별한 등에서 볼 수 있고 학생들이 각기 노로, 볶음, 파란, 라면, 김장 등의 타레트를 읽고 장인이 입은 티 세트 색이 나타내는 맛의 양에도 알아보았다.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을 소개했는데, 다양한 오랑미오 사에서 인기가 일몰을 알았다. 학생들이 각 반에서 눈높이에 맞게 재단된 학습지를 공부하며 한식학 <사진제공: 다송한국학교>

10. 한국역사문화 수업 [한스타일-한식]: 2021년 11월 25일 KDTIMES



이외에 설날의 백국과 추석의 송편, 명절대표품의 오곡밥, 어묵의 상계항과 동지의 동짓날과 동짓날 음식에 대해서도 수업이 진행됐다. <사진: 다송한국학교>

11. 한국역사문화 수업 [한스타일-한식]: 2021년 11월 29일 한국일보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11월 29일 김치의 날을 맞이해 한식에 관한 수업을 실시했다. 이날 김치 문화가 201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과 불남의 '미국, 추석의 숯연 쟁탈대보름의 오곡밥, 여주의 상계탄, 동지의 동짓날' 등 설기 음식에 관해서도 공부했다.

12. 역사문화 교재 발간: 2021년 12월 20일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신문

캘리포니아주 다솜한국학교, 인종학 관련 한인사 교재 발간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12.20 15:47

한인 이민사 인종학에 나오는 세계 속의 한인 리더
캘리포니아주 필수과목 된 '인종학' 내 한인사 교육 위해 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솜한국학교가 발간한 한국어와 영어로 배우는 한국 역사문화 교재 '한인 이민사 인종학에 나오는 세계 속의 한인 리더(Korean Heroes in Korean American Ethnic Studies)'가 지난 다솜한국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 12월 18일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국 역사문화 교재 '한인 이민사 인종학에 나오는 세계 속의 한인 리더(Korean Heroes in Korean American Ethnic Studies)'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3월 한인사 인종학이 포함된 인종학 모델 커리큘럼이 주 교육위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 12월 18일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국 역사문화 교재 '한인 이민사 인종학에 나오는 세계 속의 한인 리더(Korean Heroes in Korean American Ethnic Studies)'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3월 한인사 인종학이 포함된 인종학 모델 커리큘럼이 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고등학교 졸업 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인종학을 필수과목으로 제정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인종학은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소외를 경험한 소수 민족의 과거와 현재의 투쟁, 그리고 그들이 미국과 세계에 끼친 공헌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학문이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발표한 인종학 수업 내용은 크게 아프리카계, 멕시코계,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아계로 나뉘고 있다.

13. 역사문화 교재 발간: 2021년 12월 20일 YTN

YTN 뉴스

美 한국학교, 민족학 역사문화 교재 두번째 발간

홍지연 기자 | 2021-12-20 15:47

▶ 연방조사개발연구원 발행 등 '세계 속의 한인 리더' 있다

다솜한국학교가 발간한 한국어 관련 역사문화 교재 '다솜한국학교'가 처음

(서울=연합뉴스) 홍지연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있는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이중언어로 배우는 민족학 관련 역사문화 교재 '한인 이민사 인종학에 나오는 세계 속의 한인 리더(Korean Heroes in Korean American Ethnic Studies)'(21쪽)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아름다운 한국, 한국인의 삶(Beautiful Korea The Life of Korea)'이란 제목의 교재 발간 이후 두 번째다. 철저한 편집 3~4세의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도 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했다.

'한인 이민사' 교재 출판 기념식은 18일(현지시간)는 정영훈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 김원희 샌프란시스코 교육장, 최희연 북가주 한국학교협의회 회장, 최남진 다솜한국학교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책에서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의 기쁨을 띤 조산 안창호 선생,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 대법관이자 625 전쟁 영웅인 김영호 대령, 윤필목 사상 처음으로 다이버 2명대를 이끈 한국계 수영 영웅 세라 리 박사,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 등 미국 한인사의 리더들을 다뤘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인종학' 고등학교 졸업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다솜한국학교는 지난해 초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발표한 민족학 모델 커리큘럼의 내용을 입수해 살린 뒤 한인과 한지는 학생들이 자주 한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교재 개발에 나섰다.

최미영 교장은 "민족학 모델 커리큘럼의 내용이 보편적인 만큼 미국 정규학교에서 한인사를 가르치는지 학부모들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다른 주에서도 한인사 인종학이 필수과목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솜한국학교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6년째 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역사문화 교재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어와 영어로 책을 내고 있다.

이날 교재는 재외동포재단 스티디오투라안과 PDF 파일로 올려놓아 전 세계 한국학교가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 역사문화 교재 발간: 2021 12월 22일 한국일보

한국일보

다솜한국학교 '인종학 역사문화 교재' 발간

홍지연 기자 | 2021-12-22

▶ 연방조사개발연구원 발행 등 '세계 속의 한인 리더' 있다
▶ 거주, '인종학' 고등학교 필수과목 -한인사 인종, 한국학교서 현지 배양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이중언어로 배우는 인종학 관련 역사문화 교재 '한인 이민사 인종학에 나오는 세계 속의 한인 리더(Korean Heroes in Korean American Ethnic Studies)'(21쪽)를 발간하고 지난 18일 출판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영훈 부총영사와 김원희 부교육장, 정영주 부 재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최희연 재외한국학교협의회 회장, 최남진 다솜한국학교 이사장, 박석현 산호세 한인학교 교장, 최남진 다솜한국학교 교사가 참석해 힘겨워 축하했다.

최미영 교장은 "지난해 초 교육부에서 발표한 민족학 모델 커리큘럼의 내용을 보고 당황하여 관심을 가지게 한국학교에서 먼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2020-2021학년도 '역사문화 커리큘럼을 지원'으로 한인 리더로 통해 1년간 안창호 선생, 세라 리 박사, 김영호 대령 등 여러 인물이 대학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인종학 모델 커리큘럼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미국 정규학교에서 한인사를 가르치는지 학부모들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다른 주에서도 한인사 인종학이 필수과목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 이민사 인종학에 나오는 세계 속의 한인 리더' 교재에서는 매주 독립운동의 기쁨을 띤 조산 안창호 선생,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 대법관이자 625 전쟁 영웅인 김영호 대령, 윤필목 사상 처음으로 다이버 2명대를 이끈 한국계 수영 영웅 세라 리 박사,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 등 미국 한인사의 리더들을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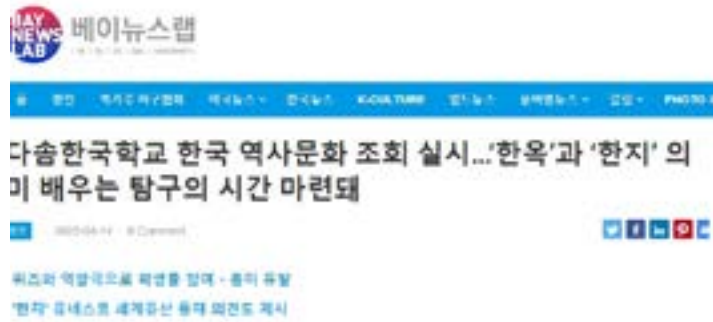
다솜한국학교가 발간한 한국어 관련 역사문화 교재 '다솜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6년째 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역사문화 교재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지난 3월 '아름다운 한국, 한국인의 삶(Beautiful Korea The Life of Korea)'이란 제목의 교재를 발간한 바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한인 3~4세의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도 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하고 있다. 이 교재는 재외동포재단 '스티디오투라안'에 PDF 파일로 올려놓아 전 세계 한국학교가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인종학'을 고등학교 졸업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19. 한국역사문화 수업 [한스타일-한옥]: 2022년 4월 14일 한국일보



다솜한국학교 학생들이 최근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배우고 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20. 한국역사문화 수업 [한스타일-한옥]: 2022년 4월 14일 현대주간



21. 보조교사 대통령 봉사상 수상: 2022년 5월 15일 베이뉴스랩



다솜한국학교가 올해의 기간 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교사들에게 대통령 봉사상과 이사장상 및 장학금을 수여했다. 보조교사들은 지난 1년간 3월 5일부터 재개된 대면 수업에 세운 도움을 주 보조교사들에게 대통령 봉사상(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및 전 남장 이사장의 수여하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5월 14일 열린 시상식에서 보조교사인 최희은, 김현우, 민준진, 전연희, 박희희, 이남진, 정지우, 이준진 등 모두 총합의 학생들에게 대통령 봉사상과 이사장상을 수여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보조교사들은 모두 9학년을 마치고 다솜한국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다.

다솜한국학교 최이영 교장은 "다솜한국학교 졸업생인 보조교사들은 통해 학생들을 위해 권태적 기간 온라인 수업은 물론 대면수업의 시작한 이후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며 시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수상한 보조교사들은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실력이 높아지는 후에 학생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으며 "다시 한국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기회에 대한 큰 감사의 마음을 하고 싶다"는 답변도 전했다.

이들 보조교사들은 지난 1년간 3월 5일부터 재개된 대면 수업과 2021~2022학년도 학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어 2022~2023학년도 학생 모집을 시작하게 된다. 학교 문의 문의는 이메일 (info@daeseok.org)로 하면 된다.

시상식에 참석한 전남장 다솜한국학교 이사장은 "배움에 대해 지원해주고 응원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다솜한국학교는 오는 5월 21일 온라인 및 졸업식을 끝으로 2021~2022학년도 학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어 2022~2023학년도 학생 모집을 시작하게 된다. 학교 문의 문의는 이메일 (info@daeseok.org)로 하면 된다.

Bay News Lab | www.baynewslab.com

22. 졸업식 및 졸업식: 2022년 5월 23일 베이뉴스랩

다솜한국학교, 졸업식 및 졸업식 열고 2021~2022 학년도 마무리



다솜한국학교가 지난 5월 23일 이후재현인양대학교 분당에서 졸업식 및 졸업식을 개최했다. 학교 교사 및 학생들이 졸업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교장 최이영)가 졸업식 및 졸업식을 열고 2021~2022 학년도를 마무리 했다.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5월 21일 삼호세원인양대학교 분당에서 2021~2022 학년도를 마무리하는 졸업식 및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졸업식 및 졸업식은 보조교사 자발적 지원과 후원으로 시작해 백석현 박사(교장), 박서보교, 교장 인사말, 학생들의 발표를 함께 시상식이 진행됐다.

최이영 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온라인 수업을 끝내고 지난 3월부터 대면수업을 다시 재개했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오셨을 것이라 믿고 있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학교 수업은 물론 대학 발동에도 적극 참여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며 감사말을 전했다.



보조교사들의 사생활이 교장, 사진: 다솜한국학교

졸업식에서는 각 반 학생들이 '다솜의 대표곡', '세종대왕 포도밭을 함께 만들었어요', '우리가 배운 한스타일', '힘들지만 끝까지 오디오에 감미로운', '열매를 가지들이 전하는 다솜 뉴스' 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으며 졸업식에서는 정우주 학생과 남해은 학생이 각각 졸업장을 받았다.



권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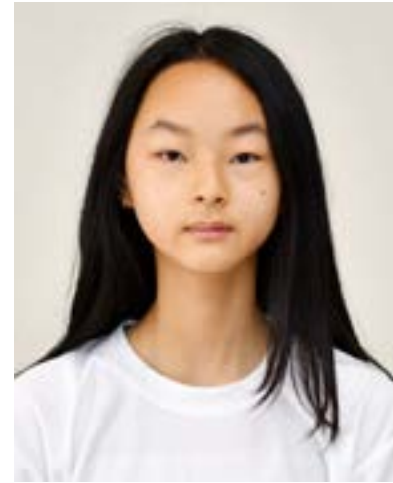
김강현



김다은



남소은



남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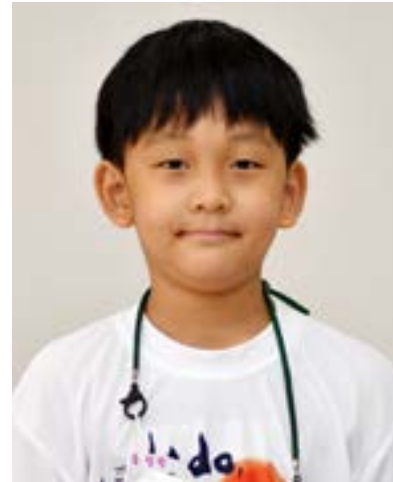
명소정



김민건



김서운



김연우



박가은



박희희



박재현



김해든



김해본



나예준



박주연



박준우



박지윤



박채림



손우제



손은제



오탐양



유준상



유준희



송예담



송주담



송하담



윤세인



윤재윤



윤지우



신주원



안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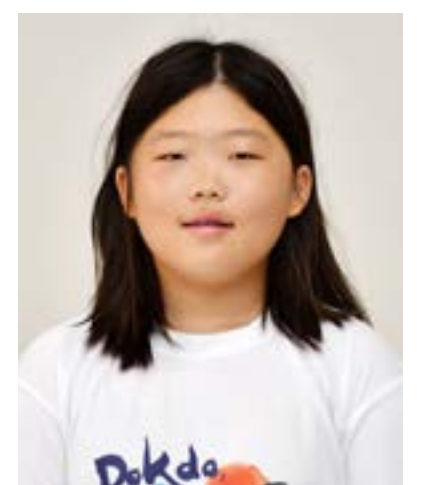
안아민



윤지웅



윤지유



윤지윤



이남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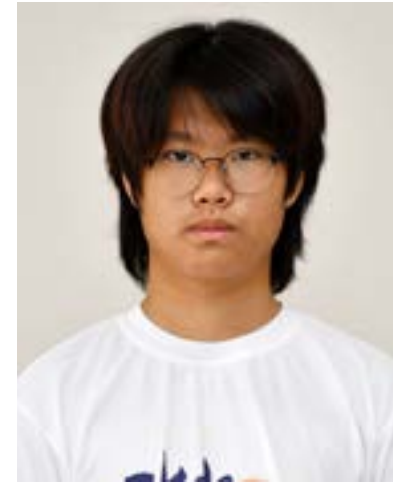
이정윤



이주환



장예진



장우주



장하진



이준



이준건



이지용



전 윤



전이현



정예서



이호윤



장시온



장예림



정지우



조다나



조새린



최하은



하지윤



한동진



한서진



교장 최미영



교감 원은경



교무 박은경



웹간사 김원구



교사 권미정



교사 안지은



교사 조은미



교사 홍지연



교사 여현주



교사 김소연



목사 박석현



이사장 전남진



직전 이사장 정철화

다솜 학생 온라인 등록 안내

본교에서는 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학생 등록을 받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종이로 학생 등록을 받는 방식에 비해 아래와 같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 간편한 등록 학생 정보 관리 (웹 database로 관리)
- 등록비 결제 자동화 (신용카드 및 개인 수표 결제)
- 학부모의 계정(User Account)에 과거의 모든 학생 등록 정보와 영수증 PDF 파일 보관
(다년간 재학 후 졸업이나 수료한 경우에 계정을 통해 졸업장 혹은 수료증 PDF 발급)
- 학부모의 계정을 통한 공지 및 소식 전달

학생 등록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말까지이며 정원이 차면 바로 마감됩니다. (정원이 차면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실 수는 있습니다.) 5월 말까지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 받고, 6월 1일부터 신입생 등록을 받습니다. 재학생 학부모는 학생을 등록했던 User Account로 로그인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등록을 위해서는 다솜 웹에 User Account가 없는 학부모는 우선 User Account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User Account를 신청하면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고 이메일에 들어 있는 웹 링크를 클릭해 답해야 User Account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솜 웹 "커뮤니티 / 웹 이용 안내" 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혹 Username이나 Password를 잊어서 로그인을 못 하시는 분을 위한 도움말도 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User Account로 로그인한 후에 학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해 웹 이용 안내 페이지에 준비된 도움말 제목들입니다. 이 도움말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웹 계정 만들기 (Creating User Account)
- 로그인 아이디(username)나 비밀번호(password)를 잊었을 때
- 학생을 학교에 등록하는 방법 (Registering Students)
- 학생 등록 확인, 수정, 취소 및 PDF 영수증 내려받기

아래 그림은 온라인 학생 등록 메뉴 페이지입니다. 가을학기 및 1년 등록의 2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등록하셔야 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잘 읽어 보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tudent Registration (학생 등록)		
Event	Class Begin	Register
2018-2019 One Year (Fall+Spring) (1년 등록)	09-08-2018 9:30 am Sat	Register (Students)
2018-2019 Fall Semester (가을학기 등록)	09-08-2018 9:30 am Sat	Register (Students)

The Young Korean American Academy

2022 SUMMER CAMP

EXPLORE KOREAN AMERICAN STYLE

코리아merican 스타일을 찾아라!



August 8,9,10,13, 2022

Mon,Tue,Wed 11am-5pm / Sat 3pm-4:30pm

SJKPC,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Contact Email: staff@echo-korea.org

Registration: www.echo-korea.org

주최: ECHO-KOREA

후원: 재외동포재단,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독도재단, 산호세 중앙병원, 청주 고인쇄박물관, 전라북도 국제교류 센터,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다솜 한국학교